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SOONCHUNH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여름 건강 특집

인터뷰_지휘자 금난새

12

금과 같은 시간

사람들은 시간을 금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일생에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성공합니다.

지금 내가 의미없이 보낸 시간이 나중에 정말 아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사진 | 목아트



CONTENTS

통합 의료워보 Vol.06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바다의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과 건강을 지켜 행복한 여름휴가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작가 · 오진목

PHOTO ESSAY column 정말 소중한 것은

인생이란 길 위에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다

Feature

special feature

03 바캉스 건강관리법 총정리

06 special feature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나눔 더하기 축제'로 인간사랑 꽃피워

08 issue

02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건강증진센터 그랜드 오픈

focus 10 방사선 치료의 마지막 대안 꿈의 암 치료기' 토모테라피

Confidence

special family

history 14 향설 서석조 박사, 열정과 노력 다해 '명의'가 되다

열정 넘치는 야구기록원, 천안병원 비뇨기과 전담간호사 정형래

18 field

16

30

32

34

마음 속 '가슴'까지 치료하는, 서울병원 유방클리닉

new medicine

22 순천향대 부천병원. 국내 최초 악안면 내비게이션 CT술 도입

doctor

24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춘동 교수

26 knowledge1

피부 절개 전혀 없는 신개념 내부 장기 내시경수술법 'NOTES'

28 knowledge 2

비타민 함유 식품 섭취와 별도로 비타민제 복용해야 하는 이유

knowledge3

액취증 등 겨드랑이 땀샘 이상으로 생기는 증상의 모든 것

knowledge4 31 상큼한 '거시기' 원한다면 '남성청결제'를 확실한 피임을 위해서는 휴가 전부터 미리 준비해야

Communion

medical campaign

people

지휘자 금난새 "가장 좋은 약은 감동 아닐까요"

doctor recipe

36 캠핑장의 아침 풍경 속에서 샌드위치와 커피 한 잔~

travel

38 한라산 '동백길' 을 가다

trend

40 유럽으로 평창으로 '뽀통령' 은 바쁘다 바빠

world class

42 자전거계의 페라리 '콜나고 페라리'

book

44 차인표 장편소설 〈오늘예보〉

movie&stage

정명훈의 '아시아필' 8월 8~9일 국내 무대 지휘한다

Communication

notice

schedule

letter of thanks

46 순천향 뉴스

진료 일정표

45

50

SCH lounge

53

감사 편지

〈순천향〉 애독자께 알림

〈순천향〉을 보시면서 더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나 잡지 제작에 조언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 순천향대의료원 기획실 02)709-9592 FAX 02)709-9594

E-mail baekju1@naver.com















발행일 2011년 7월 15일 발행인 정희연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7) 홍보팀 02-709-9120 기획 편집 제작 피앤플러스 백승주 02-2269-5689 인쇄 상림인쇄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은 무단 전재 및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길 위에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묻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피부과 **황 규 왕** 교수

사거리를 만났다.

당연하다는 듯이 직진 신호를 받아 열심히 달렸다.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신호등의 노란 신호에 액셀을 힘껏 밟아 사거리를 통과했다. 아무리 제한 속도가 60km라지만 앞의 초보운전 딱지를 붙인 차는 좀 너무하다. 시속 40km도 되지 않는 것 같다. 화가 난 듯이 액셀을 세게 밟아 그 차를 추월해서 그 차 옆을 지나치면서 한번 눈을 흘겨 주기까지 했다.

열심히 달려 길의 끝에 도착했는데, 아뿔사!

다 와보니 이곳은 내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아니었다. 갑자기 허무해졌다.

가려고 했던 곳도 아닌데 이렇게나 열심히 달려 왔다니.

한참이 지나 아까 지나쳐왔던 초보운전 딱지를 단 그 차가 도착했다. 운전사는 내려 목적지를 확인하고 제대로 온 것에 대해 만족해하며 환하게 웃었다.

도대체 뭘 하고 지내는지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다.

그리고 뭐가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지 아무리 해도 해도 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쉬는 시간을 쪼개 일을 해보고, 식사를 걸러가며 일을 하고, 급기야는 그래도 할 일이 남아서 잠을 줄여가며 일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데도 가끔씩은 성취의 즐거움이 아닌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다. 하지만 공허함을 느끼는 것도 잠시, 그럴 시간은 없다. 내가 이렇게 감상이 빠져있는 동안 나의 라이벌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쁘게 살아서인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인지, 우린 자신이 가고자 할 곳을 잊을 때가 많은 것 같다. 내가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며 불안해할 때가 있다. 생각해 보라. 열심히,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목적지를 모른다면, 그리고 내가 목적지를 모른다는 사실조차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가면 갈수록 문제가 커지는 꼴이 아닌가. 차라리 초보운전이라 멀

리 가지 않았다면 그게 더 나을 것이다. 틀린 길로 멀리 가지 않아야 돌아오는 데도 쉽고 시간도 짧게 걸리는 건 당연 하다

병원에서 중고생 환자들을 만나면 가끔 씩 물어본다.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

열에 아홉은 모르겠다고 한다.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아도 절반 이상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우리 예전에는 꿈을 말하라고 하면 대통령, 의사선생님, 경찰, 군인, 과학자, 선생님, 간호사 등등 초등학생의 입에선 해맑은 꿈들이 많았었다. 꿈이 없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

꿈이 없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가 있고, 아주 답답할 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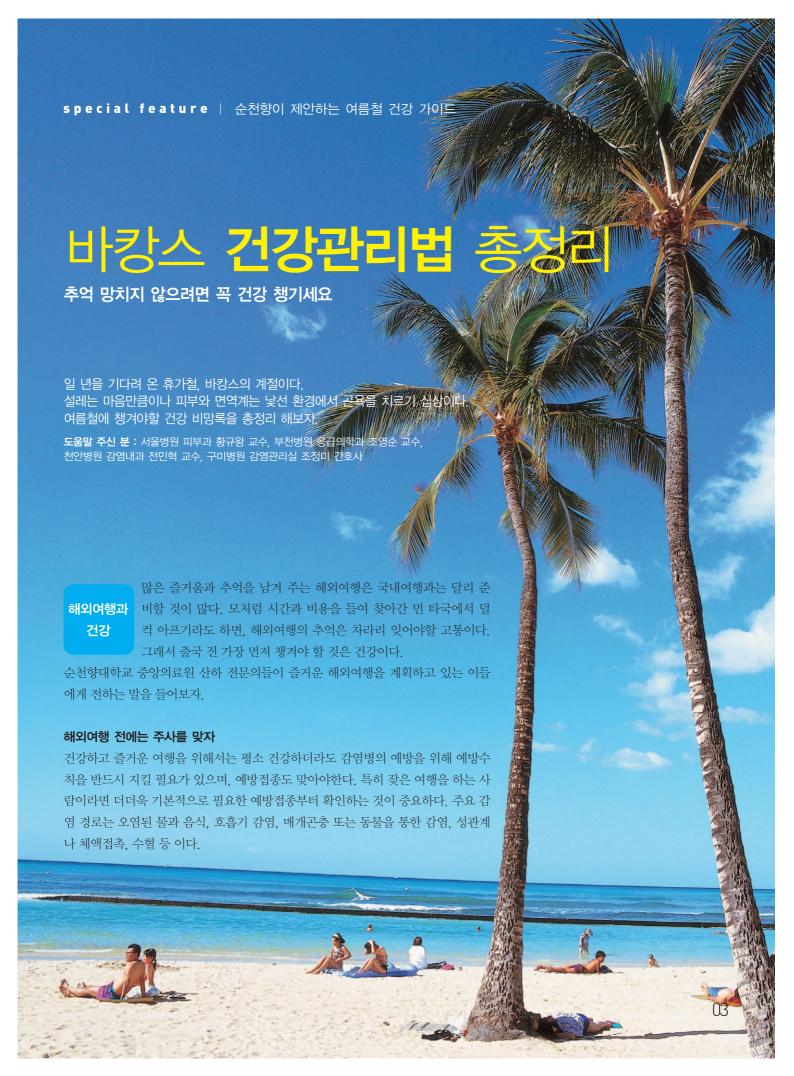
뭐가 다를까….

꿈이 없는 이 젊은 가능성들은 열심히 운전을 하고는 있지만 아무 곳이나 가고 있는 운전자일 뿐이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그리고, 멀리 가려고 노력할수록 되돌아 오기는 어려워질 뿐이다. 차라리출발이 늦고 좀 늦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목적지를 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말이다.

게다가 목적지가 있어야만 가야할 길을 정하고, 그리고 길을 정해야만, 열심히 달려야겠다는 마음도 생기게 되며, 실제 로 이런 사람은 바른 길로 빨리 달려 목 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인생은 긴 여행이다. 평생을 달릴 수 있는 저 먼 곳의 목적지를 정하고, 그 사이사이 중간 목적지를 정해야 원하는 곳에빨리 수월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가끔씩 내가 가야할 목적지를 잊고 사는 것 같아 정신없이 바쁜 이 시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할 때가 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떠올리는 여유

가 그리운 요즈음이다.



special feature | 순천향이 제안하는 여름철 건강 가이드

B형간염: B형간염은 혈액을 통해서 또는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므로 면역이 없는 모든 성인(항체 음성자)은 정해진 3회의예방접종을 맞아야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역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B형간염이 더 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인플루엔자: 여행시기가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는 철 (10~12월, 1~4월)이라면, 우선예방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성인(50세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또 임신 2~3기 산모는 필수적으로 접종한다.

성인용 파상풍/디프테리아(Td): 모든 성인은 10년에 한 번씩 성인용 파상풍 디프테리아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스포 츠를 즐기거나 직업 상 피부 외상이 잦은 사람들은 더욱 필요하다. 파상풍은 드문 병이지만 전 세계에 걸쳐있고 열대지방에서 더 흔하다.

말라리아(학질): 말라리아는 모기가 물어서 전파하는 질병이다.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학질모기에 물려서 전파되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과 기피제를 사용한다. 열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인도, 벵갈만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말라리아의 유행 지역을 가는 경우 여행기간에 상관없이 여행 출발 1-2주 전에 예방약을 복용해야한다.



- 말라리아를 전파시키는 모기
- ② 뎅귀열 (Dengue fever) 환자에서 관찰되는 피부 병변
- ❸ 황열과 뎅귀열을 전파시키는 모기
- 4 황열(Yellow fever) 유행지역







텡귀열: 말라리아는 시골지역, 밤에 물리는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편이지만, 텡귀열은 도시 지역, 낮에 물리는 모기에 의해흔히 전파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텡귀열에 대한 예방주사나 약이 없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 잠복기가 1주일 정도로 짧기 때문에, 동남아 여행 직후,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발생하면, 텡귀열의 가능성을의심해야한다.

황열: 황열도 모기가 전파하는 바이러스질환이다. 중부아프리카와 남미 지역 특히, 적도중심으로 20도 내외의 지역에서 많이 발병하고(그림==>확인 요망), 이들 지역의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입국심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1회 접종으로 10년까지 효과가 지속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공항 검역소와 국립의료원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장티푸스(염병): 장티푸스는 보균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이나 오염된 음식물을 통해서 감염된다. 위험지역은 보균자가 많은 남미 일부,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이다

A형간염: 과거 보건위생이 취약한 시절, 거의 전 국민이 어린 시절 앓고 면역이 생겼던 질환인데, 요즘 들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방송인 박명수가 감염된 후로 더욱 유명해졌다. 20 대까지는 항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 없이 예방접종 하는 것이 좋다.

공수병(광견병): 공수병은 효과적인 치료약제가 없어 야생동물이 많거나 개가 많은 위험지역에 일정기간 머물 경우 예방접종을 추천한다.

수막구균: 사하라사막 이남의 중부 아프리카지역(12~6월), 사우디아라비아(성지순례 기간)의 시골지역을 여행하거나 장 기 체류하는 경우 수막구균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수막염(뇌 막염)은 일단 발생하면 매우 급속히 사망할 수 있는 병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일본뇌염: 아시아 온대지역에서는 7~9월 사이에, 적도지역에서는 연중 발생한다. 일본뇌염 모기가 전파하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의 경우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소아는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 개인위생과 주의사항

해외여행 준비물로는 피부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긴팔 셔츠, 긴 바지. DEET(Diethymethytoluamide)가 포함된 곤충 기 피제, 전기가 없는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모기향, 햇빛 차단제 (선크림), 선글라스, 모자, 상처치료용 밴드, 박트로반 또는 후 시딘 연고, 상비약으로는 해열제(타일레놀), 처방받은 여행자설사약(항생제)등은 꼭 챙기자.

또한 위생이 미심쩍은 식음료, 특히 유제품은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 얼음이 첨가된 음료수는 마시지 않는다. 음식은 반드시 조리해 먹고, 과일도 가급적이면 직접 껍질을 벗겨 먹는다.

해외여행 클리닉(Traveler's Clinic) 방문: 순천향대학교 천안 병원 해외여행 클리닉(문의: 041-570-2100)(서울병원 02)709-9158)에서는 백신 예방접종, 예방약 처방뿐만 아니라, 여행지역의 감염병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현지에서 자주발생하는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해 빠르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교육한다. 귀국 후에도 열이나 피부발진, 설사와 같은 감염병의 증상이 있을 경우 전문적인 진료를 담당한다.

여름철 응급처치 여름철 휴가가 시작되면 갖가지 응급상황이 빈 번하게 발생된다. 아차! 하는 순간 예기치 못하 게 찾아오는 응급사고들… 여름철 응급처치법 에 대한 기본 상식을 통해 위기의 순간을 지혜

롭게 탈출해 보자.

벌에 쏘였을 때…독침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옆으로 털어낸다 벌에 쏘였을 때 발생하는 피부 반응은 벌의 침 속에 포함된 독 소에 의한 것으로, 피부가 빨개지고 부어오르며 아프거나 가려 운 경우가 많다. 벌에 쏘이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옆으로 쓸 듯이 털어낸다. 족집게나 핀셋으로 뽑으려 하면 독을 짜서 체 내로 들어가게 한 꼴이 되므로 물린 자리가 더 붓게 된다. 이 후에 상처부위에 얼음찜질을 하거나 칼라민로숀(항히스타민 제)을 바르면 증상이 완화된다.

실외 수영장에서의 화상…찬물찜질하거나 찬 우유와 물을 섞 어 바른다

해수욕장이나 실외 풀장에서 놀다 보면 햇빛 때문에 피부가 빨 갛게 달아오르고 따갑게 된다. 일광화상을 막으려면 땀이나 물에 잘 지워지지 않는 워터프루프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를 지속적으로 바르고 물놀이를 할 때도 긴소매 옷을 입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만약 피부에 화상을 입어 피부가 가렵고 따끔거리면 찬물로 찜질을 하거나 찬 우유와 물을 섞어서 바르면 된

다. 오이 팩도 보습효과가 있어 도움이 된다. 물집이 생기더라 도 그 자체가 보호효과가 있기 때문에 터뜨리지 말고 자연스럽 게 벗겨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여름 휴가 후 피부관리 무더운 더위를 피해 바다로 산으로 강으로 피서를 떠난다. 하지만 피부는 따가운 햇볕에 고생한다. 우리 몸의 피부는 여름에는 강렬한 햇볕과 보호작용의 약화로 인한 여러 문제에 접

하게 된다. 가장 큰 적은 햇볕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이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었다면 이렇게 해보자.





색소침착 기미 주근깨 : 햇볕으로 인해 색소 침착, 기미, 주근깨 등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로 미리 예방하지 못했다면, 미백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 능성 화장품 중에 코직산이나 알부 틴 등 미백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면 자외선을 쬐고 나서 점점 색소침착이 진행되는 피부색의 변 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보통 피부색을 검게 만드는 색소침착을

일으키는 효소는 자외선에 노출된 후에 5~7일이 가장 활성이 크기 때문에 이시기에 이런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미백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피부의 색소침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속 사용한다면 어두워진 색소침착이 일어난 피부를 원래의 피부로 되돌리는 작용을 빠르게 할 수 있다.

일광화상: 응급처치로도 해소되지 않고 심하게 아프면서 물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2도 화상에 해당하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을섭취하거나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이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도움이 된다.

하지만 피부건강의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외선의 지나친 노출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는 지혜로운 피서가 되어야겠다. 자외선에 노출되어 이미 손상된 피부는 인위적으로 복구할 수는 없다.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나눔 더하기 축제'로 인간사랑 꽃피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개원 10주년 맞아 마음은 나누고 행복은 더하다

이상한 뺄셈이 있다. 빼고 나누면 줄어들고 작아지는 연산의 법칙 속에서 아무리 나누고 나눠도 이상하게 더해지고 곱해지는 특수 법칙, 바로 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과 행복이다. 가정의 달 5월을 전후로 펼쳐졌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나눔 활동을 정리해 보았다. 정리 편집부



1만명의 부천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 된 휴먼러브 콘서트

강화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봉사…백내장 환자 두 분에게 무료 수술 지원

부천병원과 OBS 방송이 지난 4월 9일(토) 강화노인복지회관(강회군 소재)을 찾았다. 이날 부천병원은 종양혈액내과 · 신장내과 · 안과 등 6개과 의료진 30여명 등 총 50여 명의 교직원이 의료봉사에 참여해 70여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232건의 무료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모습은 OBS '오늘은 경인세상' 프로그램을 통해 중계되었다. 특히 이날 부천병원은 70대의 나아무개 씨와 80대의 유아무개 씨 등을 현장에서 발굴해 무료 개안 수술을 약속했다. 나씨와 유씨는 병원에 내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았으며, 당장 수술이 시급한 나씨에게는 왼쪽과 오른쪽 눈의 백내장 수술을 지원했다. 또한 당장의 수술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유씨는 3개월 동안의 약물치료를 통해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

장봉도 혜림원 식구들을 만나다…부천병원, 새마을 부녀회, 미용사까지 총출동

7년째 사랑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는 장봉도 혜림원(옹진군 소재)을 지난 5월 7일(토) 방문





- ① 장봉도 혜림원 의료봉사 _ 서교일 이사장
- ②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사랑의 병원 그림 축제'
- ❸ 인간사랑을 펼친 강화군 의료봉사
- 4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한 무료 진료





해 의료봉사를 펼쳤다. 서교일 이사장, 홍대식 병원장을 비롯해 이비인후과, 안과 등 총 8개과 50여 명의 교직원이 125명의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장봉도 혜립원 봉사가 뜻 깊었던 것은 부천시 새마을 부녀회, 부천시 소재 미용실 비온디등 부천시의 여러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혜림원 식구들을 위한 감자 심기, 이 · 미용 봉사, 배식 봉사 등을 하며 '함께'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또한 순천향대 부천병원 시설팀 교직원들은 혜림원 곳곳의 낡은 보일러를 교체해 주고 배선을 정리해 줬다.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위한 무료 검진…이주 여성 부모님도 초청해 건강검진 지원

결혼 이주 여성들을 위한 무료 검진을 지난 5월 28일(토) 원내 일반검진 센터에서 실시했다. 결혼 이민자 83명을 대상으로 116건의 무료검진이 실시되었으며, 이들 중 추가 검사나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특히 캄보디아 결혼 이민자인 31세 홈소폰 씨의 부모를 초청해 종합건강검진 및 관광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홈소폰 씨부모님의 행복한 한국 나들이 소식은 OBS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방영됐다. 또한 사회사업팀은 부천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4~6월 3회에 걸쳐 '다문화가정 출산준비교실'을 개최, 총 60여 명의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출산준비 교육을 진행했다.

부천시민의 마음을 아우르는 축제의 한마당…휴먼러브 콘서트 개최

부천병원과 OBS 경인방송이 공동으로 특집 공개방송 〈부천시민을 위한 휴먼러브 콘서트〉를 지난 5월 20일(금) 부천시 중앙공원 잔디광장에서 부천시민 약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콘서트의 1부는 다양한 장르의 춤으로 공연의 흥을 돋았으며, 2부에서는 10주년 기념 공식 행사가 진행됐다. 3부에서는 태진아·장윤정·박현빈·레인보우·길미·유키스·김태우 등 국내 정상급 가수를 비롯해 소년소녀합창단, 한국의 폴포츠 김승일의 클래식 공연이 더해져 시민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공연 시작 전에는 부천병원 간호사들이 부천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검진 및 차를 대접하는 사랑나눔 카페가 운영되기도 했다.

'희망'의 메시지를 그리다…사랑의 병원 그림 축제에서 환자, 보호자, 교직원 함께 즐겨

부천병원과 한국화이자제약이 공동으로 '사랑의 병원 그림 축제'를 지난 6월 2일(목), 3일 (금) 이틀에 걸쳐 원내에서 개최했다. 그림 축제는 환자·보호자·교직원·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며 환자들에게 '완쾌의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15점의 캔버스화와 3점의 벽화에 걸쳐 꽃·물고기·동물 등의 그림이 완성돼 환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그림 그리기뿐만 아니라 사랑의 편지 보내기, 캐리커처. 봅클레이·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와 병동 투어가 진행되기도 했다. ■ SCH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건강증진센터 그랜드 오픈

'환자 최우선주의'를 실현하는 건강증진센터로 한 단계 더 나아가다



중부권 최종거점병원의 명성을 지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건강증진센터를 확장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내실에 걸맞은 외실 또한 탄탄히 갖추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 증축 공사를 마친 센터를 자세히 둘러본다.

글_ 김보나 사진_ 임운석

최근 중증 질환 환자의 상당수가 종합검진과 같은 건강검진을 통해 몸의 이상을 알아채고 병원을 찾는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건강증진센터가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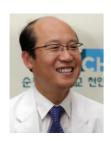
넓어진 공간, 첨단장비 증설, 전문 인력 보강

건강증진센터에 들어서면 한결 쾌적해지고 탁 트인 공간이 눈에 띈다. 종합검진센터의 총 면적이 기존 495㎡(150평)에서 1056㎡(320평)로 약 두 배 이상 넓어졌다. 전담예약코너를 비롯한 각종 대기공간과 검사실, 회복실 등의 공간이 한결 확장됐다. 공사 전 30여 명에 불과하던일일 종합검진 가능 인원이 70여 명으로 늘고 길게는 3개월이던 수검 대기기간이 크게 줄었

Mini Interview

정일권 천안병원 건강증진센터 소장(소화기내과 교수)

"10년 숙원사업의 실현으로 환자에게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정일권 건강증진센터 소장은 "지역 최고의 병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수검자의 편의를 실현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더불어 무병(無病)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좀 더 높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느낄 정도의 증상이면 이미 질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진으로서 대단히 안타깝죠.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는 만큼 질병으로 고생하는 노년층도 많아졌습니다." 그는 암검진과 성인병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진을 통해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문제 있는 생활습관을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건강증진센터 또한 이를 위해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수준 높고 경제적인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병원 문턱을 낮추어 많은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돌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각종 최첨단 설비 또한 확충 되었다. 내시경실과 초음파실이 1실씩 추가되어 수검자가 좀 더 신속하게 검진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특수 초음파는 이를 보유한 병원이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최신 설비이다. 또한 늘어난 규모에 맞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화기내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10여 명의 전문 인력도보강했다. 정일권 건강증진센터 소장은 "나날이 발전하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모습에 환자들의 호응이 매우좋다"고 전했다.

충남 서북부 건강검진의 시초, 명성을 이어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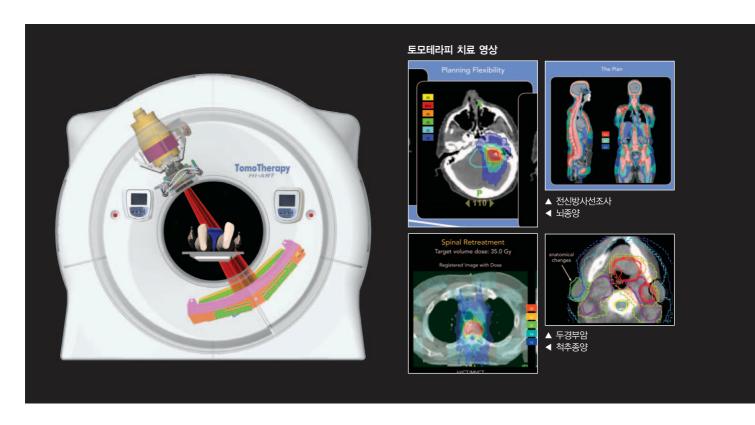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건강검진은 1996년에 출발해 충남 서북부 건강검진의 역사라고 불릴 정도로 역사와 권위를 인정받아왔다. 가장 큰 자랑은 전문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준 높은 검진. 탄탄하다고 알려진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외래 교수진이 직접 검진을 실시해 종합검진의 질을 차별화한다. 정센터 소장은 "외래와 검진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 천안병원만의 강점"이라고 설명한다. 때문에 이상 소견이발생할 시 외래 진료와의 연계가 쉽고 신속하다. 맞춤식검진 역시 특징이다. 다양한 선택검사가 마련되어 있으며

상담 시 개개인에 맞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가격 또한 천안병원 종합검진의 장점으로 꼽힌다. 일반검진 또한 암진단,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 입사용검진, 위생분야종사자검진 등을 수행한다. 결과 분석 처리와 임상검사의 정도관리는 물론, 예약부터 결과 발송까지 모든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관리해 정확성을 기한다. 또한 사업장 근로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1, 2차 건강진단을 출장 검진으로 시행하고 있다.

천안병원은 충청북부 산업의 중심이 되는 아산과 천안의 사업장 및 충청권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선다는 책임감으로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인의 필수 건강수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건강검진을 좀 더 편리하게 수검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천안병원의 노력은 20여 년의 역사와 권위에 걸맞게 계속될 전망이다.







방사선, 암 치료의 필수 요소

방사선은 일반인들에게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니다. 최근에는 일본 동북부 지방에 발생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파괴되어 방사선노출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과 동시에 일반 대중들은 방사선이라는 용어에 익숙하게 되었다. 문제는 방사선을 공포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사선은 치료의학 관점에서 보면 가장 강한 항암제로서 암 치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종양은 방사선 생물학적으로 방사선을 최고 용량으로 조사하면 결국엔 사멸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정상장기가 방사선에 피폭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방사선을 종양에만 조사하고 정상조직에의 조사를 피하게 된다면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나온 차선책이 정상조직의 방사선 피폭량을 안전 범위 내에서 허용하며 동시에 종양에는 많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 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세기변조방사선치료기 술과 영상유도방사선치료기술이다. 세기변조방사선치료는 방 사선의 세기를 조절하여 정상조직을 보호하면서 종양으로의 방사선흡수선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영상유도방사선치료는 MVCT영상을 통해 종양의 정확한 위치를 촬영해 방사선치료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기술이다.

토모테라피, 기적의 암 치료기로 탄생하다

토모테라피는 지금까지의 2차원 방사선치료, 3차원입체조형 치료, 단순세기변조방사선치료의 한계를 극복한 첨단장비이다. 방사선 치료기와 진단용 CT를 결합해 내장된 CT를 통해 종양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이가장 큰 장점이다. 아직 많은 대학병원들이 토모테라피 기기가 없어 상기 열거된 과거방식의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HD TV가 개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흑백 TV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러한 과거 방식의 치료는 결국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부천병원은 2009년 12월 토모테라피를 첫 가동했다. 두경부 암을 선고받은 환자, 폐 수술 후 암세포가 흉부를 넘어서 목 부분까지 전이된 환자 등 질병 자체가 너무 심해 '과연 치료가될까?' 의문이 들었던 환자들이 토모테라피로 치료한 후 대성 공의 결과를 얻었다. 암은 5년 동안 진행하거나 재발하지 않을

Mini Interview

환자 치료 사례 / 편도암 4기 극복하고 완치된 이하영씨

"집중 치료하고 후유증 최소화해"

"중병을 앓고 나니 부인에 대한 고마움이 커지고 가족 간에 화목함이 두 배가 됐습니다."

2010년 3월 편도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했던 이하영씨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암이라는 최종 진단을 받을 당시 이미 혀, 코, 임파선 일부에 암이 퍼져 있는 상태였다. 만약 외과 수술을 해서 혀를 자르고 턱을 잘라 암을 제 거하고 회복이 되었다 해도 재활과 미용 면에서 끔찍한 시간을 보내야 만 했을 것이란 점에서 그는 의료진 이상으로 토모테라피 치료기기에 대한 고마움이 크다.

처음에 암 4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죽을 사(死)자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중증환자등록표를 받아들고 50m쯤 걸어가는데 슬픔이 밀려오는 것과 동시에 종이에 적힌 95% 정부 지원이라는 설명이 죽을 확률이 95%라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절박한 심정에서 얼마나 살 수 있냐고물었을때 '한번 해 봅시다'라는 주치의의힘 있는 한마디에 무한 신뢰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바로 치료에 들어갈 결심을하게 되었다.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모두 35번 토모 치료를 받았다. 키 크고 건장하던 외모는 20Kg이나 줄어 초췌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드디어 8월에 주치의로부터 완치되었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후 자유롭게 먹기까지 6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체력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 힘들어도 더 먹어보려 노력한 결과 한 달 반 만에 매운 음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후 1년, 그는 비슷한 처지에 있을 암 환우들에게 해줄



말이 많았다.

"죽음을 눈앞에 두면 신체적 자존심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치료 처음부터 의사와 협의해서 못 먹을 때는 적극적인 영양 공급(위루설치술:식도를 통해 음식 섭취가 안 되는 경우 인공 식도를 통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받고 몸을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개인병원 치료를 받다 안 되면 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기자, 의사들과 교감하게 되면 병은 극복할 수 있다, 자기 몸을 사랑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종합병원을 찾아라, 의사를 신뢰하고 자신을 믿어라 등환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끝이 없다.

토모의 장점에 대해서는 "집중 치료를 할 수 있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서 사회활동을 지속시켜 가정의 평화가 계속되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요. 결론적으로는 종합병원의 뛰어난 의술과 현대식 기계가 최상의 회복을 이끈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우 왕치 판정을 받는다.

2009년 이후 아직 5년의 시간이 경과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심각했던 2명의 케이스는 완치의 첫 단추인 완전 관해(암 세포 가 5% 미만인 상태)에 이르렀다. 토모테라피는 환자에게 완치 의 희망을, 의사에게 환자의 생명을 살린다는 행복감을 주는 기기이다.

모든 암에 적용 가능…방사선 치료 · 수술 등 적용 방법도 다양

토모테라피 기기에 적용되는 암질환은 매우 다양하다. 두경부암·폐암·간암·췌장암·전립선암·척추암·재발암·다발성 전이암·부인암·유방암 등을 열거할 수 있겠지만 토모테라피는 사실 방사선 치료를 요하는 모든 암에 적용이 가능하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진 소개

• 김용호 교수

-전문 분야: 유방암, 직장암, 소화기암, 부인암, 비뇨기암

• 문성권 교수

-전문 분야: 두경부암, 뇌종양, 폐암, 식도암, 혈액암, 수술전후보조

방사선치료, 동시항암화학방사선치료, 토모테라피, 고

식적통증완화치료

• **상담전화**: 032-621-5880

다. 원칙적으로는 수술해야 하지만 해부학적 병소의 위치 특이 성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토모테라피를 이용한 정위방사선치료 및 정위방사선수술을 시도할 수 있다. ■ Sct.

열정과 노력 다해 '명의'가 되다

의사를 꿈꾸던 청년 서석조가 미국 의료계의 인정을 받기까지의 과정

정리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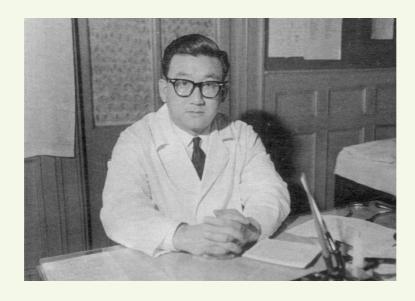
1945년 코넬대학교 의 과대학 신경내과 강사 시절 동료 교수와 함께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흔히 도리원이라고 하는 고장이 향설 서석조 박사의 고향이다. 박사는 1921년 4월 2일 일곱 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으나 첫째와 둘째가 각각 두 살, 열일곱 살 나이에 죽고 말았으므로 그 후 셋째인 박사가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장남 역할까지 해야 했다.

가족은 서박사가 세 살 때에 도리원에서 의성읍으로 이사를 했다. 서박사는 어린 시절 손재주가 좋아서 종잇조각이나 나무토막 같은 것으로 장난감을 곧잘 만들어내고, 노래도 잘 부르는 아이였다. 그래서인지 성격은 얌전한편이었지만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몇 년 후 가족은 다시 대구로 이사했는데, 그곳에서 둘째 형이 얼굴에 생긴 종기가 커져서 입원한 지 2주 만에 사망하는 불행을 당했다. 어려서 사망한 장남에 이어 차남까지 차례로 잃어버린 아버지의 상심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슬픔을 딛고 남은 자식들의 교육에 전념했다. 구한말의 개명 지식인으로서 기독교와 신문화를 일찍부터 수용했던 아버지는 자녀들의 교육에도 대단한 열의를 쏟았다.

서박사는 경북중학교를 거쳐 대구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다. 학창 시절의 그는 기억력이 비상했으며, 문학과 미술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다. 그렇다고 앞뒤 꽉 막힌 공부벌레 모범생이기만 했던 것도 아니었다.



운동에도 재능이 있어 유도가 2단에 검도가 초단이었고, 야구와 축구, 육상에서는 학교 대표선수로 뛰었다. 특히 장대 높이뛰기 종목에서는 경상북도 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후일 순천향병원 초창기 시절, 병원 체육대회라도 열릴라치면 서박사는 배구와 축구 경기에 직접 참가해 젊은 직원들과 어울리면서 만능 스포츠맨으로서의 면모를 확인시켜 주었다.

대구로 나와 살면서부터 서박사의 아버지는 자전거포를 운영했다. 당시 자전거는 재산 목록의 첫째줄에 올라갈 정도로 귀한 물건이었다. 사업차 일본에 자주 왕래하던 아버지는 자녀들이 공부를 계속하려면 일본에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아버지를 제외한 온가족이 일본으로 건너갔고, 서박사도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후 일본 유학을 떠났다. 손위 형제들의 죽음, 특히 둘째 형이 병상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목격했기 때문일까,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의사가 되기를 꿈꾸었다. 일본에서 1년간의 재수를 거쳐 교토 부립의과대학에 진학한 것은 그 때문이다. 누나인 서순자씨 역시 일본에서 의학 전문대학을 졸업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 한국전쟁 후에는 미국 유학길 '도전과 응전'자청

의대 재학 시절에는 학생회 간부로 활동했고, 고교 시절에도 그랬듯이 운동선수로 활약했다. '조선인' 이라고 얕 잡아보는 일본인들이 당연히 있었지만, 그의 성적과 실력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쉬이 나서서 괴롭히는 이는 없었다. 그래도 눈에 띄게 귀찮게 구는 일본 학생에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한다.

재학 중 일본의 패망 기운이 짙어지고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다. 전황이 악화되고만 있으니 한국인 유학생으로 서는 아무래도 입지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서박사는 학업을 끝까지 마치기 위해 다른 형제들이 모두 귀국하는 외중에도 혼자 남는 쪽을 선택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9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귀국한 서박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내과 조교로 근무했다. 그러나 서구의 발전된 선진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에 한국에만 머무를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2년 반 정도 계속됐던 서울의대 조교 생활을 정리한 뒤 아내와 어린 딸을 한국에 둔채 단신으로 미국 유학을 감행했다.

미국에 도착한 그는 숱한 어려움들을 하나 하나 극복해가며 뉴저지 주의 세인트바나바스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았고, 레지던트 과정은 뉴욕 주 록포터의 나이아가라 사나토리움 병원 흉부 내과와 뉴저지시티 메디컬센터 내과. 그리고 뉴욕 벸뷰 병원(코넬 대학교) 신경내과에서 마쳤다

1954년부터는 코넬대학교 의과대학 신경내과 강사로 활동했다. 오늘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인종차별이 심했던 1950년대 미국에서 동양인이 의과대학 교단에 선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직 열정과 노력만으로 그는 의료계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 SCH

"야구가 주는 활력과 보람을 환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열정 넘치는 야구기록원, 천안병원 비뇨기과 전담간호사 정형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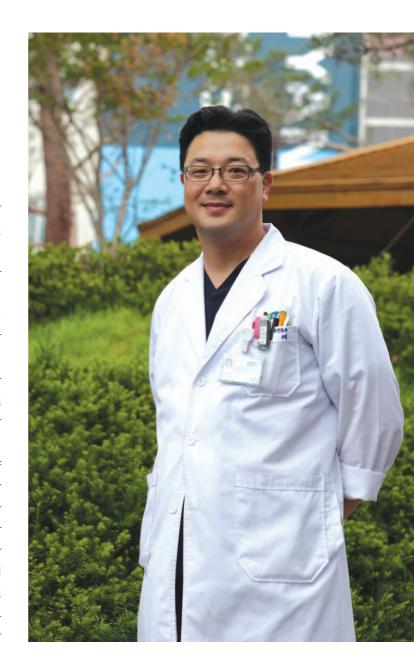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취미를 통해 우리는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가꿔간다. 천안병원의 정형래 간호사는 야구기록원이라는 특색 있는 취미로 건강, 사람 그리고 일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야구에 푹 빠진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_김보나 사진_임운석

천안병원 야구회의 후보 선수로 야구인생 출발

야구기록원이란 말 그대로 야구경기에서 벌어지는 전반적인 상황과 선수들의 경기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야구 좀 아는 사람'이라면 심판과 더불어 야구 경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임을 인정한다. 야구는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순간적인 판단이 쉽지 않은데다 유난히 기록이 중요시되는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이 까다로운 일을 취미로 가진 사람이 바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비뇨기과 전담간호사이자 천안시 야구기록원으로 활동하는 정형래 간호사이다. "2005년에 천안병원에 입사하고 2006년에 천안병원 야구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제 야구인생이 시작됐어요. 현재 야구회 선수와 총무직을 겸하고 있고 사회인 야구팀으로 이루어진 천안시 야구연합회 기록위원장과 경기6팀장도 맡고 있어요."

야구 관련 직함만 네 가지, 열정에 감탄하자 그는 "사회인 야구라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라며 쑥스러워한다. 여자 동료들이 많은 간호업무라 남자 동료들과도 어울리고자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동호회 활동이 그를 야구 마니아의 길로 빠져들게 했다. 그가 속한 천안병원 야구회는 30년 병원 역사와 맥을같이 하는 28년의 역사의 야구팀이다. 작년 충남도지사 사회인 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천안 제일의 직장인야구팀으로 알려져 있다. 수준 높은 팀에서 곧바로 주전으로활동하기는 쉽지 않은 법. 입회 초반에는 후보 신세를 벗어나



기 어려웠다. 어느 날 경기 중 한 중학교에서 벤치를 지키다가 우연히 야구 기록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이 야구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을 한순간에 바꾸었다. 3~4시간이 걸리는 경기를 한 장의 종이에 기호로 고스란히 담아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록의 마술이었다.

기록원만의 역할과 매력에 푹 빠진 정형래 간호사

"그때부터 거의 2년 동안은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WBC 같은 유명 경기 동영상과 다른 사람의 기록지를 일일이 맞춰보곤 했 죠. 연습을 하면서 더 나은 실력을 위해서 자격을 갖추고 싶어 졌어요. 처음에는 사회인 야구를 위한 일반 기록 강습회를 듣 고 천안시 야구연합회의 기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후인 올 초, KBO 한국야구위원회에서 50명을 대상으로 개설한 전 문기록원 과정을 7: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이후 천안시 야구회 기록위원장도 맡게 되었고요." 기록원은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과는 달리 선수 한 명, 한 명의 행동을 판정해 개인 기록을 정리한다. 안타인지 실책인지, 도 루는 몇 개인지. 타율이 몇인지가 모두 기록원의 손에서 탄생 한다. 늘 공정함을 지녀야 하고, 오로지 기록원만이 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매력이란다. 지금 기록하는 경기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유일한 경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짜릿하다고. 사회인 야구이기 때문에 퍼펙트게임이나 노히트 노런 같은 경기도 종종 나온다. 비록 비공식 경기이기는 하지 만 실제로 기록적인 경기를 기록했다는 뿌듯함도 크다.

천안병원의 이름을 걸고 하는 야구, 가족과도 즐기고파

그의 주말은 천안병원 야구회 선수로서, 천안시 야구기록원으로서의 경기일정으로 빈틈없이 계획되어 있다. 주말을 기다리며 주중의 강도 높은 업무를 견디곤 한다. 비가 오면 경기를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에 다음 주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한다.

"어떤 위치에서 경기에 참가하든, 야구에 빠져있는 시간만큼 은 방전된 배터리가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한 주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침체될 때가 많은데 주말 동안 에너지를 받아 나누어주고 싶기도 하죠." 이렇게 야구를 통해 일상과 병원생활이 더욱 즐거워졌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보람을 느끼는 점은 병원을 알린다는 자부심이다. "순천향 대학교 천안병원의 이름으로 경기에 나가고 우승을 거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홍보라고 생각해요. 기록원은 평상복을 입는 게 보통이지만 저는 꼭 병원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가곤 해요. 함께 경기를 하며 알게 된 사람들이 병원의 환자로 찾아오기도 하죠. 그라운드가 아닌 삶의 터전에서 그들을 만나고 도움을 주





기록원으로, 선수로 늘 야구와 함께 하는 정형래 간호사.

고받는다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야구 동호인들처럼(?) 가족들에 게는 원망 섞인 불평을 듣는다는 것. 아무래도 야구에 영 관심이 없는 아내는 주말마다 야구장으로 달려가는 남편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간호사가 생각해 낸 방법이 바로아내에게 야구 룰을 알려주는 것이다. "룰을 몰라서 야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 번 야구 규칙을 알게 되면 정신없이 빠지게 되죠. 아직은 멀었지만 조금씩 야구랑 친해지게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물론 집안일은 주중에 도와주고요." 딸들도 세살, 네살로 아직 어리지만 야구장에 데리고 가서 주말을 함께 보내기도 한다. 네 식구가 함께 야구의 매력을 즐기는 것이 그가 그리는 가족의 모습 중 하나이다.

전문 야구기록원으로서의 경력을 쌓아 인정받고 싶다

정형래 간호사는 야구기록원이라는 업무가 좀 더 체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야구 기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록을 배울 수 있고 경기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야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천안에는 아직 없는 기록연합회를 세우는 것이 야구인으로서의 꿈 중 하나죠. 여러 야구팀의 자료를 모아서 매뉴얼을 제작하면 기록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BO 전문기록원 과정을 수료하기는 했지만 기록원으로서 경력을 쌓으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고자 노력하는 그는 점차 공식 경기 기록에도 도전할 생각이다. 바로 KBA 대한야구협회 기록원으로서 학생들의 경기에 참여하는 것. 학생들의 경기는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도 걸려있기 때문에 사회인야구보다 기록이 훨씬 중요하고 경기 규모도 크다. 기록원도 더욱 집중해서 경기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제게 너무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냐고들 하지만 제게 야구는 결코 뗄 수 없는 생활이에요. 건강도 챙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무엇보다 보람과 자부심도 주는 야구를 앞으로도 제대로 즐겨 볼 생각입니다."

병원 시 최고 명의의 지휘로 환자에게 건강과 사랑을 전하는 현장, 서울병원 유방클리닉 마음속 '가슴' 까지 치료하는 '토탈 케어' 실천

이민혁 교수가 이끄는 서울병원 유방클리닉이 국내 최고라고 이름난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뛰어난 수술성적, 협진 및 주치의 시스템으로 공포와 상실감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지지와 용기를 선사하기 때문이다. '환자 중심'이라는 지침을 머리에 새기고 실천하는 그들의 24시간을 함께 해봤다.

글 김보나 사진 임운석



AM 07:30. 스터디를 겸하는 의료진 회의로 유방클리닉 스태프들은 분주하다. 스크린이 마련된 컨퍼런스 룸에서 오후에 이루어질 30대 여성의 수술 방법에 대해 유방클리닉 스태프들이 의견을 나눈다. 이 30대 여성은 현재 유방을 절제할지 아니면 보존할지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이민혁 교수는 늘 환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 준다. 이른 아

침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모두들 집중하는 분위기이다. 숨소리마저 크게 들려온다. 잠시 후 환자는 유방을 보존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의료진에게 전해왔다. 환자에게 수술방법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환자가 본인의 수술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한 시점에서 회의는 종료된다.

수술 중인 유방클리닉 팀. 피부보존 유방절 제술로 잘 알려져 있다.



이민혁 교수는 임상연구의 계획 및 진행 보고가 치료의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늘 강조한다. 확실한 과학적 방법에서 얻어진 근거를 적용하려는 개념이 의학에 도입되어 왔고, 그에 따라 임상연구의 중요성이 커져가는 요즘, 유방클리닉 팀의 임상연구는 이민혁 교수의 주도하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천, 천안, 구미병원의 유방클리닉 팀과 '순천향 유방암 연구회'를 결성하여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분기별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세계 유방암학회 (GBCC) 2007 조직위원장과 2009 대회장을 역임한 이 교수의 경력과 명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암정복 사업 과제인 '한국인 유전성 유방암 연구'의 세부책임연구자로 서 연구 및 교육도 맡아 진행 중이다.



8:00

AM 08:00부터 약 삼십 분 동안은 오전 회진이 이루어진다. 내일 모레 오른쪽 유방암으로 수술을 앞둔 43세 환자가 침상에서 이교수 팀을 맞는다. "혹이 여러 개 있어서 유방을 절제하고 재건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까 봐 재건은 안 했으면 하는데요, 교수님." "그럼 모양이 흉해서 나중에 많이 속상하실 텐데요. 수술 시간은 생각보다 길

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 근육을 이용 하면 합병증도 거의 없고, 재발 가능성도 낮으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나중에 다시 정식으로 면담을 하겠습니다." 이민혁 교수는 국내 최초로 피부보존 유방절제술 및 즉시재건술을 도입한 주인공이다. 이는 두 가지 수술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고, 흉터가 거의 남지 않으며 지연성 유방재건술에 비해모양이 훨씬 자연스럽다. 또한 인공 보형물이 아닌 본인의 등근육 (광배근)을 이용하여 유방을 재건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도 적다. 피부보존 유방절제술 후 일반적으로 11~17% 정도에서 발생한다는 피부괴사도 이민혁 교수의 유방클리닉에서는 160여 명의 수술 환자 중단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의료진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성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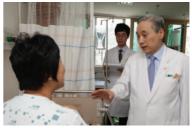
8:50

AM 08:50. 숨 돌릴 시간도 없이 바로 이민혁 교수와 이지현 교수, 김지선 전임의, 윤황진 외과 전담간호사 이렇게 네 명이 수술실로 들어선다. 40대 환자가 왼쪽 가슴 수술을 앞두고 있다. 환자는 '경막 외 마취'로 가슴 부위만 선택적으로 마취하고 수면 상태로 수술대에 오른 것이다.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십관의 거부감도 줄이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며 통증도 적다. 마취통증의학과

옥시영 교수팀과의 협진이 빛을 발하는 과정이다.

먼저 '감시림프절 생검술' 로 겨드랑이 림프절의 전이 여부를 알아본다. 보통 감시림프절 생검술은 겨드랑이를 4~5cm 가량 절개해 상처를 남기지만 이민혁 교수는 겨드랑이 피부에 1.5~2cm 정도의 작은 상처만 내고 내시경을 이용하여 감시림프절을 절제한다. 채취한 림프절은 즉시 응급동결조직검사를 실시한다. 30분 만에 결과가 통보되는 정확도 95%의 검사이다. 다행히 이 환자는 감시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제 의료진이 본격적으로 수술에 착수한다. 이 환자의 경우 혹과 유두의 거리가 2.8cm가량 되어 유두를 보존하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최고라는 명성에 맞게 완치율이 높고 재발률 과 합병증이 타 병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



약 세 시간 후인 AM 11:40. 드디어 이교수를 비롯한 스태프들이 가운과 마스크를 벗고 수술실을 나선다. 수술은 성공적이다. 성형외과의 강상규 교수팀이 재빨리 바통을 이어받는다. 환자의 위치를 바꾸고 등 근육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이 지체 없이 이어진다. 이교수 팀은 겨우 숨을 돌리는 듯 하지만 점심 먹을 시간도 빠듯하다. 응급 환자 대여섯 명이 외래 진료실에서 대기 중이며 병동

에서 호출도 있기 때문이다. "교수님 먼저 어서 식사하세요. 저희는 알아서 간식 먹을게요." 이지현 교수와 김지선 전임의가 이민혁 교수의 등을 떠밀며 진료실과 병동으로 향한다.



또 한 건의 수술을 마친 PM 03:00. 정규 진료가 없는 화요일이지만 응급환자가 대기 중이다. 유방암이라는 질병의 특성 상 응급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나 수술 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퇴원 환자의 경우 언제든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민혁 교수가수술이나 병동 진료에 열중하는 중에도 외과 유방클리닉 이현원ㆍ이은희 닦

당이 응급 환자의 연락을 도맡고 있다. 20년 가까이 이민혁 교수와 손발을 맞춰 유방클리닉 외래를 함께 해온 이현원 담당자는 응급 시 이민혁 교수와 즉각 연결되는 핫 라인이다. 이교 수의 외래 진료시간, 진료실에 흐르는 잔잔한 음악은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현원 담당자의 손길이다. 한편 이은희 담당자는 여기 저기 분주히 연락을 취하면서 환자가 당일검 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스케줄을 챙기고 있다.

출산한 지 6개월 정도 되는 30대 환자는 왼쪽 가슴에 농양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유 수유로 인해 간혹 발생되는 일이다. 통증이 심하고, 균에 의한 감염으로 패혈증으로 발전할 위험도 있어 염증을 도려내는 간단한 응급 수술 조치가 내려진다.

50대 환자는 딸과 함께 진료실을 찾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지만 상처가 완벽히 아물지는 않은 상태이다. "회복이 너무 느리지 않나요? 제가 뭘 잘못해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회복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염증도 없고 배액관도 곧 제거할 수 있을



순천향 서울병원 유방클리닉은…

국내 최고 권위를 지닌 '피부 보존 유방절제술' 의 선구자

이민혁 교수의 특기인 피부보존 유방절제술과 등 근육을 이용한 유방보존 및 복원술은 한 번의 수술로 안전한 암 절제와 미용 효과까지 높인다는 평가받고 있다. 서울병원 유방클리닉은 수술환자의 약70% 정도를 이와 같은 수술로 치료하고 있다. 특히 수술 후 재발률이 5% 미만일 정도로 성적이 좋다. 환자들의 평균 만족도는 10점을 기준으로 할 때 7.6점으로 나타나며 40%의 수술 환자가 '매우만족한다'고 답하고 있다.



원스톱 시스템과 주치의 개념으로 환자의 편의를 최고로 구현한다

서울병원의 유방클리닉은 타과와의 다양한 협진이 가장 큰 특징이다. 클리닉을 찾은 환자들은 이민 혁 교수의 진찰을 시작으로 방사선과에서 X선 및 초음파, MRI 검사 등을 받는다. 이상이 발견되면 병리과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모든 결과는 이민혁 교수에게 통보된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일 확정 또한 가능하다. 이토록 복잡한 과정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 말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인 것이다. 수술에 있어서도 다각적인 협진으로 환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방클리닉에서는 수술 후에 환자에게 합병증이나 다른 질병이 생기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유방클리닉과 협의하여 치료에 임하도록 하는 '주치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4시간 언제나 클리닉 스태 프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조직하고, 응급한 경우 이민혁 교수와 직접 전화 상담을 하거나 바로 병원으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 것 알고 계시죠?" "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걷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 교수는 생활 지침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유방암은 완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암에 걸려 수술을 치른 환자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떠한 질병이든 건강한 생활 습관 또는 식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태프들은 정규 진료시간 외에도 환자들을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개선하는 추후 상담 및 교육에 무척이나 힘을 쏟는다. 이 교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탈 케어 (total care)' 시스템이다.



PM 06:00 부터는 또 한 번의 회진이 기다리고 있다. 이민혁 교수가 방문하는 환자들의 얼굴엔 늘 미소가 가득하다. 세심하게 신경 쓰는 이 교수의 마음이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이다.

피부보존 유방절제술을 받고 등근육을 이용해서 유방을 재건한 환자가 활짝 웃는다. "감사합니다. 유방을 살릴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모양도 예쁘고

상처도 아주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팔 꿈치를 펴시고 팔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허투루 지나치는 일이 없다.

"직접 드레싱을 갈아 주시고 운동교육까지 직접 해주시기도 하네요." 꼼꼼한 회진에 감탄하자한미란 외과 전담간호사가 슬쩍 보충 설명을 곁들인다. 퇴원을 앞둔 40대 환자는 "암 병동 같지 않게 간호사들과 의료진 모두 활기차고, 환자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라고 감시를 전한다. 단지 수술에만 능한 의사라면 이토록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그 누구보다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는 환자들에게 진심이 담긴 지지는 그 어떤 약보다도 큰 효과가 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유방클리닉 스태프들은 오늘도 환자들의 겉으로 아픈 '가슴'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 속 '가슴' 마저 어루만진다.





이민혁 교수

"다각적인 접근으로 병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



"유방 재건술에 대한 인식조차 전무하던 1980년대에 처음으로 수술을 시작했어요, 20 대 유방암 환자였으니 이제 50대죠, 아이도 낳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유방암 수술의 개척자로 알려진 이교수는 성공적 인 수술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올바로 확립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꾸준한 운동, 풍부한 채소 및 과일 섭취는 누구나 '공식' 처럼 아는 이야기임에도 그만큼 실천하기 힘든 지 침이다.

"어릴 때부터 괴식하고 비만하면 성 조숙증이 오기 쉽고 이것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발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 조심해야죠."

안민혜 간호사

"자가 진단과 더불어 일기를 써 보세요"



안민혜 간호사는 신뢰 가는 태도와 친절한 설 명으로 환자들의 마음 을 편안하게 달래주는 유방클리닉 상담실의 대표 간호사이다. 그녀 가 환자들에게 꼭 하고 픈 조언은 무엇인지 물

었다. "자가진단이 유방암 발견에 큰 도움이 되지 만 문제는 잘못된 자가진단으로 혼란을 겪는 환자 들도 많다는 사실이죠," 그녀는 효과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자가진단 일기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 이야기한다.

"정상인 사람에게도 멍울은 느껴질 수 있어요. 문 제는 멍울의 여부나 부위, 크기가 어떻게 변화하는 가예요. 매일 꾸준하게 관찰해보면 이상이 생겼을 때 더욱 빨리, 잘 알 수 있습니다."

김지선 전임의

"불가능한 환자에게서 기회를 창조할 때 가장 보람"



늘 연구에 매진하고 환자를 가까이에서 돌보는 이민혁 교수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 김지선 전임의, 서울병원 유방클리닉을 자랑해달라는 주문에 '환자에게 좋은

병원'이라는 짧고 굵은 답변이 돌아온다. "전문의 가 진료를 보고 병동 환자를 관리하는 대학병원은 아주 드물어요. 타 병원에 갔다면 유방 재건의 기회를 갖지 못했을 환자를 성공적으로 수술했을 때참 보람을 느낀답니다." 환자의 삶 전체를 건강하게 디자인하는 꼼꼼한 상담과 세심한 진료 또한이곳만의 자랑이라고. "함께 호흡을 맞추는 교수님과 팀원들의 열정을 보며 진정한 명의가 무엇인지 늘 생각하게 돼요."

예뻐지는 길,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찾는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성형외과 신호성 교수, 국내 최초 약안면 내비게이션 CT술 도입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성형외과가 국내 최초로 내비게이션 CT를 도입한 악안면 수술을 진행해 주목받고 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한 악안면 수술은 기존의 악안면 수술법보다 정교하고 안전해 안면기형 환자들에게 희망의 뉴스가 되고 있다. 정리 _ 편집부



1 내비게이션 시스템 본체

- 2 환자와 내비게이션 내 CT 이미지를 동기화하기 위해 안면부 marker를 얼굴에 부착한 모습.
- 3·6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해 시술을 받은 안면 비대칭의 남자 환자와 주걱턱의 여자 환자 사례
- (3·5 수술 전, 4·6 수술 후).













평소 운동을 즐기는 최영민 씨(가명·29세)는 4년 전 운동을 하던 중 턱뼈가 골절되었다. 왼쪽 송곳니 아래쪽과 어금니 옆쪽 턱뼈의 골절로 한 개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1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그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며 경과만 지켜보면 된다는 기분 좋은 소견을 듣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턱이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지지대를 빼낸 후부터는 그나마 철심에 의존하던 치아가 급격하게 한쪽으로 돌아가 결국 안면기형에 이른 것이다. 직장생활로 바빴던 최 씨는 얼굴이 좌우 비대칭인 상태로 약 2년 정도를 보냈으나 혼기가 다가오자 여성 앞에서 자신 없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대학병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안면기형,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 필요

최 씨처럼 안면기형을 앓고 있는 환자는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심하지 않은 안면기형만으로도 환자들이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안면기형 환자들뿐만 아니라일반인들도 미용적 측면에서 수술치료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악안면 수술의경우 양악수술, 안면윤곽술의 경우 광대뼈 축소술 등이 각광받고 있다.

악안면 수술은 단순한 교정치료나 연부조직의 조작만으로 해결될 수 없어 정밀한 측정을 바탕으로 치조골(잇몸뼈) 하방의 턱뼈인 기저골을 이동시켜 진행하는 수술이다. 따라서 치아와의 교합상태에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안면골의 윤곽을 교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안면윤곽술에 비해 고난위도 수술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양악 수술은 상악(위턱)과 하악(아래턱뼈)을 모두 수술하는 방법으로 구강 내 절개를 통해 수술을 진행하며 개인에 따라 뼈 두께전체를 깎기도 하고 뼈 안쪽만 깎기도 한다. 광대뼈 축소술은 입 안이나 두피로 접근해 광대뼈의 크기를 줄여주는 수술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악안면 수술의 경우 의료진이 확보할 수 있는 수술 시야가 좁아 최선의 수술 결과를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과다출혈, 의도하지 않은 부분의 골절, 수술 합병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수술법 중 하나가 CT 이미지를 바탕으로한 3차원 내비게이션 수술법이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수술 시 환자의 해부학적 구조물과 수술기구를 내비게이 션 기기 내부에 저장된 3D CT 이미지와 동기화시켜 실시간으로 수술이 시행 되는 위치를 컴퓨터 화면상에서 확인시켜주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신경외과 영역에서 두개 수술 시 사용되어온 기기를 부천병원이 국내 최초로 성형외과 분야에 적용시킨 것이다. 이로써 외과의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위치를 수술할 경우 신경이나 혈관과 같은 중요 해부학적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좀더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확한 절골술로 부작용 최소화하고 심미적 만족감 극대화시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해 수술을 진행하면 부작용을 줄여 안전하며, 외부절 개로 인한 절개 흉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악안면 수술 시 계획된 디자인에 따른 정확한 절골술로 미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이러한 장점들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성형외과에서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8개월간 양악수술(4명), 광대뼈 축소술(2명) 등 총 6명의 수술을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진행한 결과 모두 확인된 것이다.

양악 수술에서 상악 분리 시 가장 많이 발생되는 합병증으로 하행구개동맥의 손 상으로 인한 과다출혈과 부적절한 수술 시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부위의 골절 발생 등이 손꼽히는데,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수술 도구의 끝을 내비게이션 기기와 동기화해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구개동맥의 손상을 피할 수 있다. 하악 분리의 경우 하치조신경의 손상이나 의도하지 않은 부분의 골절 등의 부작용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치조신경은 좌우측 하악의 감각 신경을 주로 지배하고 있는 신경으로, 손상될 경우 아랫입술 등의 감각이 마취된 것 같이 두툼해지고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며 식사 중 음식을 흘려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치조동맥은 하치조신경과 동반해 하악관 속으로 진입하는 혈관으로, 혈관 손상시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수술 도구의 위치를 하치조신경 및 하치조동맥의 주행경로를 피하며 수술을 진행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다.

이처럼 안전하고 더욱 정교해진 악안면 수술의 개발은 안면기형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뉴스가 되고 있다. 특히 안면윤곽술이 꼭 필요하면서도 신경이나 혈관 등의 중요한 구조물들이 일반적인 해부학적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비게이션 수술법을 통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겉은 묵묵히, 속은 열정 가득히 '신생아 심장질환' 책임지는 의사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춘동 교수

구미병원이 경북 중서부 거점의 최고 병원으로 자리잡은 데에는 소아청소년과 명의 김춘동 교수의 공이 크다. 20년 이상의 경력으로 인근 지역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겪는 신생아 환자들의 진단을 도맡고 동료 전문의들에게까지 권위를 인정받는 김춘동 교수를 만났다. 글 김보나 사진 임운석

경북 지역 최고의 소아청소년과 심장 전문의

구미는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30대 젊은 세대 거주자가 많아 경북지역 내 출산율 1위를 차지한다. 자연스레 미숙아나 신생아 환자도 많다. 출산 신생아의 약 1%라는 선천 성 심장 이상 또한 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신생아 질병 중 하나이다.

"가장 늦게 발달되는 태아의 기관이 폐와 심장이기 때문에 미숙아일수록 심장에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청진기 검사 시 심장에서 소리가 들리는 '심잡음'이 발생하면 이상 신호로 보고 검사를 실시하게 되지요. 심실이나 심방에 구멍이 있는 심실·심방중격

결손이 가장 흔한 선천성 질환인데 요즘은 다행히도 수술이나 치료로 거의 완치가 가능합니다."

구미를 비롯한 경북 서북부의 신생아 중 심장 이상을 지닌 아이들의 부모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바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이다. 소아청소년과 심장 전문의로 명성 있는 김춘동 교수에게 진단받기 위해서다. 1987년 순천향 병원 소아과 전문의로의료 생활을 시작한 김교수는 레지던트 시절부터 심도자술과 초음파로 심장 질환을 진단해 왔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중 심장 이상을 진단하는 전문의가 많지 않은 것은 물론, 김교수처럼 연륜있는 의사 또한 드물다. 때문에 그의 위치는 거의 독보적이며 진단 또한 정확도와 예리함, 검사 건수에서 월등하다는 평가다.

"손바닥만 한 신생아 중환자들이 단지 검사만을 위해 산소 호



흡기를 달고 서울이나 대구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것 때문에 이곳에서 신생아 심장 진단에 매진했는지 모르겠네요. 다행이 10여 년 전부터 구미에서도 초음파만으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김교수가 있기에 대구와 같은 인근 대도시가 아닌 구미에서 선천성 심장 기형을지닌 태아의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하고미숙아들이 진단받을 수 있다. 이는 단지 환자의 편의 문제를 떠나 경북지역 전체의 의료의 질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의료진이 부족한 대구의 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큰 부담을 더는 길이기 때문이다.

환자와 후배 의료진을 모두 감동시키는 열정과 따스함

김교수의 공식적인 심장초음파 검진은 매주 월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 일주일에 두 차례. 하지만 신생아에게 호흡 곤란과 같은 응급 상황이 닥치면 그는 24시간 언제나 '출동' 해야 한다. 폐의 이상인지 심장의 이상인지 알아보기 위해 당장 검사가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의 전화기는 언제나 연락 가능이며 행동은 후배 의료진보다 늘 한 발 더 빠르다.

한동안 소아 심장 전문의라는 직책을 내려놓고 대학병원을 떠났다가 병원 측의 권유로 복귀한 김교수는 "결국 지금의 일이 내 일인 것 같다"고 전한다. "우리 병원 간호사의 가족을 진단한 적이 있어요. '수정대혈관전위'라는 병이었는데, 검사로 발



견하기 힘든, 드문 질병이었죠.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심각한 병명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다행이 지금은 완치되어 잘 지낸다고 해요. 어떤 병이든 놓치지 않고 발견해 건강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 보람이고 의무이지요."

중증 환자를 접하고 진단해 병을 알리는 것은 늘 조심스럽고 가슴 아픈 일. 선천성 질환이기에 부모들은 큰 죄책감을 느낄 수있다. 때문에 결과를 알릴 때에는 단어 선택 하나도 신중하게고려한다. 한 환자에게 30~40분을 할애해 자세히 설명하기도한다. 반면 정확한 진단으로 적시에 치료받아 쾌유하는 환자를보면 부담을 모두 잊을 만큼 보람을 느낀다. 때문에 한 명이든열 명이든,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의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체크한다.

"지금처럼 환자를 도우며 보람을 느끼고 싶다"

김춘동 교수의 바람은 단순하면서도 분명하다. 환자들이 가슴에 희망을 새기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지하고 심장질환을 더욱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선천성 심장병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 환자와 보호자가 완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의사의 조언과 진단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검사는 초기에 병을 발견해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목적인데 태아 심장초음파 검사의경우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막상 출산하면 정상이거나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이상이 발견되면 90%의산모들이 인공유산을 하는 것이 안타깝죠. 용기 있는 출산이 더욱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가와사키병에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김 교수를 찾는 환자에게서 선천성 심장 이상 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 바로 가와사키병이다. 주로 5세 미만에서 나타나는데 원인은 정확치 않지만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오래 발열이 이어 지면서 2차적으로 심장 혈관이 팽창되어 문제가 생긴다. "병에 대한 기초 진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 조금이나마 정보를 모아 케이스 스터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구미 병원은 2차 진료기관으로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후속 조치나 연구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임에도 김 교수는 대한소아과학회와 대한소아심장학회, 대한심장학회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늘 연구하며 타병원 의료진에게도 명성을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의 바람을 묻자 원대한 포부나 욕심보다는 보람과 소박함이 담긴 대답을 건넨다.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환자 곁에 있다는 것이 가장 좋지요. 지금만큼만 환자들을 돌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더 바랄게 없을 것 같네요." ■ SCH

흉터 남기지 않고 진단·치료한다

피부 절개 전혀 없는 신개념 내부 장기 내시경수술법 'NOTES'

우리 몸에는 '자연개구부'라는 신체 부위들이 있다. 입, 항문, 질, 요도 등 자연 통로를 말하며,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원래부터 열려져 있는 기관의 입구 또는 출구들이다. 최근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이들 자연개구부를 통해 주변 장기를 수술해내는 새로운 개념의 수술법이 등장해 전 세계 의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다. 바로 NOTES(Natural Orifice Transluminal Endoscopic Surgery, 자연개구부 내시경수술)이다.

글_ 이석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문의처_ 041-570-2120

NOTES란 인체의 자연개구부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는 내시경 기술과 기존의 복강경 기술을 혼합한 것으로 내부 장기의 질환을 상처 없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새로운 개념의 수술 방법이다. 즉, 입, 항문, 여성의 질 등에 내시경을 삽입한 후, 위, 대장, 질의 벽을 뚫고 배속으로 내시경 기구를 진입시켜 환부를 수술하고, 다시 벽을 봉합하는 수술 기법이다. NOTES의 장점은 미용학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이다. 피부를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몸 외부에는 어떤 흉터도 남지 않는다. 또 통증 및 입원기간의 감소 등 여러 부가적인 이익들이 많다는 것도 NOTES의 장점이다.

2004년 미국의 칼루라는 내시경의사에 의해 처음 개발되어 현재 미국, 유럽,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담낭이나 충수돌기 등의 제거에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의 수술법은 환자를 전신 마취 후 복강경의 도움을 받으면서 시행되므로 100% NOTES라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미국에서 시작한 신개념 수술법인 NOTES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세계 최초 전신마취 없이 NOTES 시행

2009년 필자는 국내 최초로 NOTES를 이용한 진단적 복강경을 시행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복수로 인해 고생하는 여자 환

자를 대상으로 내시경을 위 속으로 진입 후, 위벽을 뚫어 복강 내 결절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했다. 이 시술을 통해 환자 복수의 원인이 난소암의 전이로 인한 것임을 밝혀낸 바 있다〈그림 1〉. 모든 시술 과정은 전신마취 없이 내시경실에서 수면내시경 (의식 하 진정내시경)만으로 시행되었다. 전신마취 없이 시행된 NOTES 시술로는 세계 최초이며, 2010년 4월 미국내시경학회지에 발표되어 전 세계의 의사들을 놀라게 했다.

지금까지 많은 증례들을 대상으로 시술했지만 합병증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획기적이면서도 안전한 NOTES는 소화 기 종양제거술에도 이용되고 있다.

〈그림 1〉 진단적 복강경



'내시경의 달인'이석호 교수

이석호 교수는 '조기 위암과 대장암의 내시경적 치료'에 있어 세계 톱클래스로 인정받는 내시경의 달인이다. 내시경적 치료와 관련한 SCI 논문 저술도 40편을 넘는다. 한 번 서기도 어렵다는 미국내시경학회 및 유럽내시경학회의 연단에 초청 연자로 다섯 번이나 올랐다.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2005년 락천의학 상을 비롯해 한일내시경심포지엄 우수연제상은 2005년과 2006년 연속 수상했으며, 2007년에는 월봉학 술상을 수상했다. 2008년부터 2년간 미국 하바드의대에서 교환교수로 활동하면서 우수 교환교수에게 수여하는 2009 New Frontier Award를 수상했고, 하버드의대가 주최하는 보스턴 국제내시경심포지엄에서 2008년부터 3년 연속 강연을 맡는 등 그의 탁월한 실력은 미국에서도 빛났다. 얼마 전에는 이교수의 의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의 하버드 의대 학생들이 천안병원에 와서 직접 연수를 받고 가기도 했다.



필자는 지난해 NOTES 수술법을 이용하여 점막하 종양의 전층 절제술도 시행해 성공을 거뒀다⟨그림 2⟩. 이 역시 전신마취 없이 수면내시경만을 이용하여 점막하 터널을 만든 후 점막하 종양을 전층 절제한 뒤 제거해냈다. 제거된 점막하 종양은 위의 4번째 근육층에 위치한 신경종으로 기존의 치료법을 이용한다면 개복 혹은 복강경을 이용한 제거가 필요한 병변이다. 환자는 NOTES 수술 다음날부터 식이를 시작하고, 시술 3일째에는 어떤 합병증도 없이 안전하게 퇴원했다. 점막하 병변을 복강경 없이 NOTES만을 이용해 제거한 이 사례 역시 세계 최초의 사례로 현재 미국내시경학회지에 채택되어 게재를 앞두

'NOTES의 메카' 순천향

2011년 2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공동 설립한 대한무흉터내시경수술학회(KNOTES)가 출범했다. KNOTES의 초대 회장은 천안병원 김선주 교수이다.

김교수는 대한췌담도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회장, 대한소화기학회 부회장 등을 지낸 바 있는 소화기병 치료의 명실상부한 권위자다. 동 학회 학술분야 이사로 서울병원 조주영 교수가 선임되었고, 천안병원 이석호 교수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산하 NOTES 연구회의 회장도 서울병원 조주영 교수가 맡고 있다. 이처럼 NOTES의 중심에는 순천향이 있다.

〈그림 2〉 점막하 종양의 전층절제술



고 있어 또 한 번 우리나라의 치료내시경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었다.

NOTES는 조만간 안전성을 갖춘 수술기구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여, 곧 여러 분야에서 많은 수술에 이용되는 훌륭한 수술법 으로 발전될 것이 확실하다. 치료 효과와 흉터는 물론이고 치 료를 받는 환자는 통증을 느끼지 않아 환자들에게 큰 만족스러 운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환자나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는 NOTES와 같은 획기적인 수 술법이 많아졌으면 한다. ■ SCH

대한민국은 지금 '비타민 신드롬'에 걸렸어요》

비타민 함유 식품 섭취와 별도로 비타민제 복용해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은 지금 '비타민 신드롬'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달에도 수 십건씩 비타민이 암이나 심장병 등을 예방해준다는 연구결과가 신문, 방송을 통해 보도된다. 이에 따라 '비타민제'에 관한 관심도 무척 높아졌다.

글 _ 홍유미 헬스조선 기자 hym@chosun.com

대한민국은 지금 '비타민 신드롬'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달에도 수십 건씩 비타민이 암이나 심장병 등을 예방해준다는 연구결과가 신문, 방송을 통해 보도된다. 이에 따라 '비타민제'에 관한 관심도 무척 높아졌다.

비타민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경로는 당연히 식품이다. 하지만 사실 식품으로만 필요 비타민을 모두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다.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C(성인 100mg)를 식품으로만 채우려면 오렌지를 20개나 먹어야 한다. 이 밖에도 현대인에게 비타민제가 꼭 필요한 이유는 여럿이다.



첫째, 예전보다 뚱뚱한 영양실조인 사람, 즉 불규칙한 식사를 하거나 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채소를 거의 먹지 않거나 고기만 너무 많이 먹거나 밀가루 음식만 먹는 등 '균형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에너지 섭취는 '과잉' 이지만 영양소는 오히려 '결핍'이다. 똑같은 한 끼 식사지만 밥과 찌개로 구성된 한정식은 열량이 $400\sim500$ kcal지만 햄버거나 자장면 등양식, 중식은 열량이 $800\sim1000$ kcal나 된다.

둘째, 식품 자체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양이 과거보다 크게 적어졌다. 미국 오버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엽산 함유량은 약 20년 전인 1985년에 비해 50%로 줄었고 콩속 비타민B6 양은 3분의 1, 바나나의 비타민B6는 10분의 1, 사과의 비타민C는 5분의 1로 줄었다.

셋째, 식품 조리·가공 시 상당량의 비타민이 소실된다. 냉동 채소는 싱싱한 채소에 비해 비타민C 함유량이 50%나 떨어진다. 귤은 따서 8주가 지나면 처음 들어있던 비타민C의 50%가사라지고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데우면 비타민C와 엽산이 30% 이상 소실된다.

비타민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보다 훨씬 적은 양이 필요하지만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과일과 채소에 풍부한 비타민B, C는 음식의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수적이다. 우유, 계란, 육류에 많은 비타민D는 우리 몸의 칼슘 밸런스를 맞춰준다. 씨앗, 견과류, 올리브 오일에 풍부한 비타민E는 필수 지방산의 부패를 막아준다.

여기에 최근에는 비타민의 새로운 기능이 계속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달 유럽갱년기학회에는 혈중 비타민D 수치가 높으면 심장병, 당뇨병,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평균 43%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서울대병원은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매일 비타민C 50g씩을 투여한 결과, 수술부위가 빠르게 아물고 항암제와 방사선 부작용도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비타민을 어떻게,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지만, 서구화된 식단과 바쁜 생활 패턴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려운 현대인에게 비타민은 가장 저렴한 건 강보험인 것만은 확실하다.

질병 아닌 질병, 땀냄새를 잡아라

액취증 등 겨드랑이 땀샘 이상으로 생기는 증상의 모든 것 Q&A

글_하영인 구미병원 성형외과 교수

액취증이란 무엇인가요?

액취증이란 원어로 Axillary osmidrosis이며 겨드랑이 땀샘의 이상으로 특이한 냄새를 풍겨 주위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일컫는 말로 취한증(bromidrosis), 겨드랑내 혹은 암내라고도 합니다. 취한증이란 본래 불쾌한 냄새가 나는 땀을 뜻하는 것으로 액취증과 혼용되지만 원래의 뜻은 액취증과 다한증이 함께 나타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액취증은 성인 남녀 100명 중 2~3명 정도이며, 성비는 남자 45%, 여자 55%의 비율로 여자가 약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부모 중 1명이 액취증을 갖고 있으면 50%의 자녀에서 액취증이 생길 수 있고, 부모가 모두 액취증을 갖고 있으면 약 80%의 자녀에서 액취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러나 액취증 환자의 20% 정도에서는 전혀 가족력이 없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기능적 장애를 초래하는 악성 질환은 아니나 심한 악취로 인해 대인 관계에서 위축감을 가지게 되며 그로 인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액취증은 왜 발생하나요?

우리 몸에는 약 2백만~3백만 개의 땀샘이 있는데, 땀샘에는 에크린선과 아포 크린선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에크린선은 체온을 조절하는 땀샘으로 2 백만~3백만 개의 땀샘이 한 시간에 2000~3000cc 정도의 땀을 만들어내어 체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땀샘은 진피에 깊숙이 위치해 있고 온도에는 민감하지 않으나 심리적인 자극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릴 때는 냄새가 나지 않다가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에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이미 형성된 아포크라인 땀샘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특이한 냄새를 발산합니



다. 이 아포크린선은 전체의 약 95%가 양측 겨드랑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나머지 5%는 음모, 유두, 배꼽 부위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분비된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세균과 반응해 강한 냄새를 풍기는 것입니다.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마른 사람보다는 뚱뚱한 사람에게, 또 생리 전후에 냄새가 많이 나고 폐경기이후에는 냄새가 나지 않게 됩니다.

다한증과 액취증은 다른 것인가요?

다한증은 병적인 원인에 의해 에크라인 땀샘에서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나, 소모성 질환, 뇌혈관 장애 등의 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환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진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액취증은 아포크라인 땀샘에서 우유 빛깔이나 옅은 노란색을 띠는 땀이 나며,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액취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보존적인 요법으로 목욕을 자주 하고 겨드랑을 자주 씻어주거나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 등 청결하게 하고 겨드랑에 항균성 분말을 뿌리는 등으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로써 아포크라인샘을 제거하는 것인데,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피부 밑 조직 삭제법은 국소마취 혹은 수면 마취 상태에서 시행해 여드랑 주름선을 따라 절제해 피부 밑 지방층을 깎아내는 방법이며, 지방흡인술을 이용한 방법은 약 2개의 1cm 절개선을 이용해 초음파, 지방흡입, 레이저 등으로 아포크라인 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해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중 환자와 상담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상큼한 '거시기' 원한다면 '남성청결제'를!

전용 클렌징 제품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사용법

'그걸 더럽게 어떻게 만져?'라고 생각하는 그녀, 시큼한 냄새 풍기며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의 샅(사타구니)을 위한 해결책이 있다. 위생은 물론 잠자리 분위기까지 업시켜 주는 남성청결제에 대해 알아보자.

글 헬스조선 김아름(칼럼니스트)

남성기 전용 클렌징 제품도 있다!

남성청결제 시장이 최근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여성청결제는 많이 들어봤어도 남성청결제는 금시초문이라는 사람도 많지만,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남성청결제는 한마디로 '남성 샅 전용 클렌징 제품'을 말한다. 세안할 때 비누 대신 폼클렌징을 사용하는 것처럼 남성의 성기도 비누나 보디워시 대신 전용 클렌징 제품을 사용하면 생식기 청결에 더욱 효과적이다.

비뇨기과 전문의 권남성 원장은 "비누는 단순 세정 작용만 하는 데 비해 남성 청결제는 항균력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남성청결제가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제품은 아니지만, 비누나 보디워시보다 생식기 청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 하다"고 말했다.

남성청결제. 생식기 질병을 예방한다

남성 생식기인 고환은 정자 생성을 위해 정상 체온보다 낮게 유지돼야 하므로 음당 표피에 분포되어 있는 땀샘을 통해 열을 발산한다.

권남성 원장은 "남성의 음경 주변은 털도 많고 습하기 쉬워서 습진이나 낭습, 곰팡이균으로 인한 완선 등이 잘 생긴다. 또한 포경이 안 돼서 포피가 귀두를 덮고 있는 경우, 지방성 분비물인 스메그마가 포피염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 로 생식기 건강을 위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시간 운전을 하거나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남성은 샅 주위에 땀이 차기 쉬우므로 습진이나 완선 등의 질환에 더욱 유의한다.

남성청결제, 성기 청결에 대한 좋은 습관

사위를 한 후 남성청결제로 다시 음경 주변을 닦아줘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사타구니와 음경을 신경 써서 닦게 되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성기 청결에 대한 의식을 심어 주므로 남성청결제 사용으로 긍정적인 습관을 기를 수 있다.

남성청결제, 섹스 전 여자를 위한 배려

남성 성기의 청결 상태에 대한 염려는 여자의 성감을 저하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특히 오럴섹스를 즐기는 커플이 늘고 있는 요즘은 더더욱 성기의 청결 여부가 중요하므로, 섹스 전 그녀에 대한 배려로 꼼꼼히 닦아 주는 것은 기본이다.



더위가 시작되고 여름 피서에 마음이 설레는 계절이 왔다. 피서지에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더위를 식히며 즐거운 여름을 보낼 계획에 마음이 설렌다. 모처럼 집과 직장을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다보니 마음은 들뜨기 마련. 절제하던 것들이 너그럽게 변하고, 자칫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거사(?)를 맞기도한다. 이 같은 무방비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거나, 피임의 실패 후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응급피임약을 사용하게 된다. 응급피임약은 말 그대로 응급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지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알고 복용하는 것과 맹신에 따른 복용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최근 약품의 슈퍼 판매의 논란이 응급피임약으로 확대되어서 응급피임약을 처방약에서 처방전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의 약품으로 전환하자는 제약협회의 주장에 찬반 논란이 한창이 다. 그러나 피임교육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우리나라 실정에 서 임신예방 효과가 떨어지며 고용량 호르몬의 부작용이 있는 응급피임약만을 믿는 무분별한 성교는 어찌할 것인가?

응급피임약은 임신의 위험성이 있는 배란기에 다량의 호르몬을 복용함으로써 임신을 가능성의 줄여주는 약이다. 응급피임약은 계획되지 않은 성교, 콘독이 찢어졌다든지 피임 방법이 불확실할 때, 강간 등 불시의성교 후에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 말 그대로 1회에 한해 응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이다.

응급피임약은 황체호르몬인 레보놀게스트렐
1.5mg 짜리 1정을 성교 후 72시간내에 복용하는
것으로, 한꺼번에 많은 호르몬은 복용함으로써 배
란을 막거나 지연시키거나 자궁내막의 착상을 방해하여 임신
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다.



응급피임약은 피임성공률이 평균 85%로 실패율은 15%에 이르므로 임신을 완벽하게 예방하지는 못한다. 응급피임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성관계 후 3일 이내에 복용해야 하는데, 24시간이내 복용하면 95%, 48시간이내 복용하면 85%,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면 67%의 임신예방 효과가 있다.

응급피임약 복용 후 2~3시간 이내에 토한 경우에 는 피임효과가 없으므로 다시 복용하든지 다른 피임법을 사용해야 한다

응급피임약은 한 월경주기에 단 1회의 성교에 한해 효과가 있으므로 성교 시마다 응급피임약을 먹거나 용량을 많이 먹어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생기므로, 응급피임약을 1번 복용한 후에는 다음 생리가 나올 때까지는 성관계 시마다 콘돔으로 피임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생리가 나오면 피임성 공률 99%인 일반피임약을 즉시 먹기 시작해 확실한 피임을 계속 해야 한다.

지임약의 10~20배의 호르몬을 사용하므로 물론 부작용이 있으므로 자주 사용할 방법은 아니다. 응급피임약을 복용한 후에는 토하거나 두통, 어지 러움, 무기력, 복통, 이상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월경도 불규 칙해질 수 있다. 만일 월경 예정일에서 1~2주 경과해도 월경 이 없을 때는 반드시 임신을 확인해야 한다. 확실한 피임을 위해서는 피임실패율이 높고 부작용이 많은 응급피임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바캉스전부터 미리 피임을 준비해야 한다. 먹는 피임약은 올바르게 복용하면 99% 이상의 높은 피임효과를 볼수있을 뿐만 아니라 생리주기를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다. 또,생리통과 생리량을 줄여주어 빈혈을 예방하고, 난소암과 자궁내막암을 예방하고, 피임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여드름이나 월경전증후군의 치료효과까지 있다.

생리를 연기하는 것도 피임약의 기능 중 하나. 특히 바캉스철에는 많은 여성들이 피임약을 이러한 목적으로 이용한다. 피임과는 상관없이 생리 연기를 위한 복용은 생리 시작하기 5~7일 전부터 매일 1정씩 복용하고, 복용을 중단하면 생리가시작된다. 단, 생리를 연기시키기 위해 며칠간만 피임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피임 효과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한다.

콘돔은 성병을 예방하는 이점이 있으나 잘못 사용하면 피임 실패율이 15%에 이르므로 사용 시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최근에는 여성은 먹는 피임약, 남성은 콘돔을 동시에 사용하여 임신과 성병을 동시에 예방해 서로를 보호하고 존중 하는 피임방법을 선호하는 추세이다.

바캉스철, 들뜬 기분에 아차하면 생길 수 있는 바캉스 후의 심각한 후유증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바캉스 용품 준비보다도 미리피임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눈길을 끌었다. 의자도 패브릭, 원목, 스테인리스 스틸 등 같은 소재나 디자인은 하나도 없이 제각각이었다. 하지만 저마다 다른 소품과 가구들이 마치고 자리가 제자리였던 듯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렸다. 저마다의 강한 개성을 하나로 어우르는 노련한 지휘자의 감각이 인테리어에도 그대로 배어있는 듯했다. 저마다 다른 가구들의 협연, 개성 넘치는 소품들의 오케스트라였다.

개성의 어울림이 오케스트라

음악과 예술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하셨을 테니 오늘은 건강을 주제로 인 터뷰하자고 제안하자 해맑은 얼굴로 반색하며 소년처럼 눈동자가 반짝였 다. 친화력과 부드러움,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느껴졌다.

"사람들이 저를 건강하다고들 해요, 작년엔 이틀에 한번 꼴로 150회를 연주했어요. 이렇게 30여년 음악회를 했지만 건강 때문에 취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원들이 간혹 뭐를 드시기에 그렇게 건강하냐고 묻곤 하는데 내 건강 비결은 잠을 잘 자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주회를 하면 지방 여러도시를 많이 다니게 되는데 버스에선 잠을 못자는 예민한 연주자들도 많지만 전 잘 자죠. 돼지따라서 그럴까?(웃음) 식사도 가리지 않고 소화도 잘되

건강 비결 '잠. 긍정. 칭찬'

예전에는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에 가면 현지에서 자고 다음 날 이동하곤했는데 요즘엔 바로 서울로 와서 헤어진다고 한다. '집 밥'에 길들여진 때문일까.

"집사람이 해주는 밥이 제일 좋아요. 언제나 맛있게 먹죠. 결혼한 뒤에 10 킬로그램이 늘었어요. 전 칭찬을 잘 해요. 밥 먹을 때마다 수식어를 바꿔가면서 맛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어릴 때 부엌에도 들어가지 않는 무뚝뚝한 아버님을 보고 저는 칭찬을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독일에 유학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할 때는 요리 잘하는 결혼한 친구한테 얻어먹으려고 양파 썰고 닭 쪼개고 하며 거들어주면 친구가 맛을 내서 같이 먹곤 했죠. 음식을 직접 하니 맛을 알게 되고 재미도 있더군요. 집사람은 어릴 때 장모께서 요리를 안 해주고 사먹곤 해서 결혼하면 요리해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저는 너무 다행인 거죠. 내가 장모님을 만났으면 못 얻어먹었을 텐데(웃음)"

음식문화 '청결 혁명' 필요

음식 얘기가 길어져 취미로 주제를 돌리자 "특별한 취미는 없지만 그림과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금난새와의 인터뷰를 위해 7층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먼저 인터뷰하던 팀이 예정된 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덕분에 스튜디오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공연 없는 날의 '부산한' 한낮을 지켜볼 수 있었다.

글 한정현 사진 권남근

고 화장실도 규칙적으로 가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선지 문제가 좀 있어요. 7년 전부터 당이 있다고 해서 주스, 아이스크림, 초콜릿을 안 먹고 있어요. 과일도 무가당이라고 해도 안 먹는다는 거 그거 하나가 문제네요."

귓가에 음악 흐르던 그 순간 잊지 못해

금난새는 음악의 치유효과를 어떻게 생각할까.

"슬픈 음악을 들으면 쳐지고 아심찬 음악을 들으면 힘이 나죠. 태교음악으로 선호하는 모차르트의 음악은 간결한 일식 같다고 할까. 반면 바그너의음악은 오래 끓인 얼큰한 음식 같지 않나요? 색도 너무 강한 색보다는 마일드한 색이 산모에겐 좋다고 하죠. 더욱 중요한 건 음악에 예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약효가 없는 사람은 뭘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며 눈물을 흘려본 사람과 〈터미네이터〉를 보며 자란 사람은 다르지않겠어요? 음악을 들으며 느끼는 감동이 굿 메디신(good medicine)인 거죠.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돈이 한 푼도 없이 고생했지만 그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비록 좁디좁은 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양 옆으로는 플라타너스가 쭉 이어져 있고 귓가에는 방금 들은 훌륭한 음악이 흐르던 그 시절을 잊지 못해요."

디자인에는 관심이 많아 스케치는 잘 못해도 현대화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고는 다시 음식으로 말길이 돌아갔다.

"음식에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선은 너무 단 것이 문제예요. 지나치게 짜고 단 음식은 사람을 죽이는 비윤리적인 문화예요. 남은 음식을 다시 쓰는 것도 너무 불결해 한정식 집엔 꺼려지게 되요. 일본 사람들은 라면 하나를 먹어도 남기는 것이 없고 깨끗해요. 유럽에서는 중국집도 깨끗해요. 반찬이 없고 요리 중심이라 남길 것이 없죠. 삼계탕집에서는 뼈를 담을 그릇을 주니 상이 깨끗한데 갈비집이나 생선집에서도 배워야 한다고 봐요. 한 일식초밥집에서는 음식쓰레기가 보이지 않도록 입구가 좁은 항아리 종지를 주길래 인상적이었죠."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서 온 금난새. 최근에는 50명 정도 들을 수 있는 작은 공연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대도시에서 시골 방 방곡곡까지 클래식이 확산되는 일에 힘쓰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예술의 전당에 올리고,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후원하는 등 직업이 아닌 취미로 클래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글_ 황인철 구미병원 산부인과 교수

바야흐로 휴가철입니다.

지루한 장마가 지나면서 휴가 때 이곳저곳으로 여행 갈 계획 많으시죠? 요즘은 아웃도어의 붐이라고 할 정도로 캠핑 계획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캠핑이라고 하면 텐트 하나 치고 휴대용 가스버너에 연기 자욱한 삼겹살 그리고 밤새 부어라 마셔라 먹는 소주…, 어떻습니까? 다들 이런 추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캠핑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과거 술보다는 자연과 함께 하는 캠핑이 늘어나고 있어 무척이나 바람직하게 생각한답니다. 캠핑장 주변으로 등산과 하이킹, 혹은 트래킹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고 주변의 유명한 고적지를 방문하기도 하는 등 캠핑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가로운 캠핑에 즐거움을 더해줄 브런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밤새 술 먹고 해장할 뜨끈한 국물보다는 가볍게 빵과 함께 캠핑의 하루를 여는 것도 멋진 추억일 것 같습니다.

항상 술과 함께 하는 캠핑의 안 좋은 과거는 이제 버리시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멋진 추억으로 올 여름 휴가를 떠나봅시다.

캠핑장의 아침이 밝는다.

밤새 이곳저곳에서 피어나던 모닥불과 숯불은 어느덧 잔불로 남아 연기만 피어 오르고, 친구들과 모처럼만의 모임이었는지 새벽까지 정치 사회, 연예면등 신문을 방불케 하는 다방면에 관한 진지한 토론은 끝났는지 텐트에서는 코고는 소리만 들린다. 캠핑장이 마치 놀이터인양 뛰어놀면서 울고 웃던 아이들의 목소리도 조용해져 정적만이 흐르고 가끔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 이곳이 밖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캠핑장의 아침 풍경을 너무도 사랑한다.

바쁜 것도 없고, 시끄러운 것도 없으며 아직은 차가운 바람이지만 기분 좋은 차가움에 정신이 맑아진다. 밤새 피다가 남은 잔불에 나무라도 땔 참이면 나무에서 풍겨 나오는 매콤한 나무 타는 냄새도 이 아침에는 더욱 특별히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 밤새 죽어라 술을 마셔대면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쓰린속을 부여잡고 얼큰한 것을 찾고 싶을 때는 캠핑장의 낭만적인 아침보다는 시끄러운 도심의 해장국집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적당히 기분 좋을 정도의 맥주 몇 잔은 다음 날 멋진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안 지도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알고 난 이후부터는 캠핑의 매력에 더욱 더 빠져들게되는 것 같다.

집에서도 그렇지만 밖에 나와서도 늘 아침 6시는 나만의 알람시계이다. 수십 년을 그렇게 일어났더니 잠자리가 바뀌어도 시계는 계속 돌아간다. 깔끔한 성격의 마눌님 덕분으로 어느 정도치워져 있는 텐트 주변이지만 그래도 치울 것은 생긴다. 이것저것 깔끔하게 정리를 한후 집에서 가져온 커피를 볶아본다. 새벽의 자연에서 커피를 볶는 낭만은 언제라도 설레인다. 탁탁 튀는커피 껍질은 주변의 사람을 깨울 정도의 정적을 깨지만 이후 퍼져가는 짙은 향기의 커피향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전문가적인 바리스타의 손길은 아니지만 느긋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일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터라 커피를 볶는 손짓을수십 분간 이어간다. 볶은 커피를 식히고 준비한 식빵을 가스불을 이용해서 굽는다. 커피의 향과 고소한 버터의 향은 이미 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우기에 충분하다. 어제 먹다 남은 상추를 씻고 간단하게 레몬을 곁들여 샐러드를 만든다.

그리고 식은 커피를 갈아 모카포트에 올리면 이 세상 최고의 낭 만적인 아침이 시작된다.

유난히 커피를 좋아하는 마눌님의 덕분으로 커피를 마시게 되었지만 이제 나도 어느 정도의 전문가적인 입맛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이 커피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의 커피라 정의하며 힘찬 하루를 시작해본다.

recipe

1. 아침에 먹는 브런치 샌드위치

재료 샌드위치 식빵, 햄, 야채, 치즈, 잼, 계란

- 빵을 가스불을 이용해서 노릇하게 굽습니다.
- ② 빵의 속 면에 잼을 발라준다. 잼을 바르는 것은 맛도 좋지만 수분이 빵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이줍니다.
- ③ 계란을 빠르게 스크램블 에그처럼 볶는다. 약간의 반숙으로 볶는 느낌이 좋다.
- 4 계란을 올리고 햄과 치즈를 토핑하면 간단한 샌드위치 완성



2. 연어 샐러드 만들기

재료 훈제 연어 한 팩, 오이 등 야채, 올리브

드레싱 재료 칠리소스 5T, 참기름 1T, 레몬즙 2T, 소금 1T

- 1 훈제 연어 한 팩을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 2 오이는 살짝 소금에 미리 살짝 절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3 분량의 드레싱을 잘 섞은 후 연어와 잘 버무려주면 됩니다.

3. 따뜻한 커피 한 잔

잔불에 커피를 갓 볶아서 먹는 커피 한 잔은 캠핑의 낭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이긴 하지만 힘들면 소위 말하는 다방 커피 한 잔도 멋진 브런치의 메뉴로 손색이 없겠네요.

- 1 커피 생두를 프라이팬에 올리고 약불에서 계속 뒤적여 주며 볶는다.
- 2 10분 정도 지나면 생두의 껍질이 팍팍 하면서 벗겨진다. 이때 껍질을 불면서 계속 볶아준다.
- ③ 이후 한 번 더 튀는 소리가 나면서 커피의 윤기를 갖게 되면 불을 끄고 빨리 식힌다.
- 4 그라인드에 멋지게 갈면 커피 볶기는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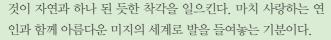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날 아침 둘레길의 시작인 법정사로 향했다.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에 걱정하다 안개비를 만나니 처음에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안개를 너무 무시했던 건가? 한라산 중턱으로 갈수록 안개가 더욱 심해져 여정이끝날 때까지 나의 주변을 맴돌아 시야를 흐렸다. 물론 그 덕에이번 걷기에서는 색다른 분위기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한라산의 둘레길은 해발 600~800m의 국유림 일대에 있다. 현재 시작 지점인 법정사에서 동쪽 돈내코 계곡까지 9Km 중제1구간인 동백길만 개방되어 있는데, 동백길 안에서도 시오름까지 5.7Km만 걸을 수 있다. 둘레길 조성이 모두 완성되면코스를 따라 한라산의 오름이나 생태 숲, 휴양림을 둘러보고역사와 산림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아름다운 섬 제주를알리는 또 다른 아이콘으로 비상할 것같다.

지금은 한없이 아름답기만 한 이 길에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스며들어 있다. 일제 강점기, 제주도의 울창한 산림과 표고버섯을 수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병참로 '하치마키 도로' 54Km와 임도 20Km, 표고버섯 운송로 6Km를 연결해 총80Km의 길이 지금의 아름다운 둘레길의 역사이다. 둘레길의 시작인 법정사도 뼈아픈 역사의 현장이다. 기미년 3·1운동보다 5개월 먼저 일어난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 항일운동인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으로 법정사는 항일 지사들의 체포와 동시에일본에 의해 불태워졌고 지금은 축대 등 건물의 일부 흔적만이남아 있다. 이들의 넋을 기리는 항일 기념탑을 지나면 한라산의 둘레길을 알리는 진입 이정표가 있다.

이정표를 지나 숲길에 들어서니 동백길의 첫인상은 '환상 숲길'이다. 자연의 길을 그대로 살리면서 오솔길을 만들어 놓은





울창한 숲이 우산이 되어주는 환상 속 동백길

이정표를 최소화하다 보니 가끔씩 방향이 헷갈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나뭇가지에 달린 예쁜 동백길 리본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 자연에 심취되어 걷다보니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울창한 수풀이 거대한 우산이 되어 비를 막아주었다. 이윽고 다다른 곳은 우리나라 최대의 동백나무 군락지. 길을따라 드문드문 붉게 핀 동백꽃이 확연히 많아진 것이 보인다. 뽀송뽀송한 흙이나 미끈미끈한 자갈들이 그대로 보존돼 걷는길에 맛을 더해 준다. 길의 중간 중간에는 크고 작은 하천들이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다. 검은 바위들과 울창한 숲 사









이로 비치는 계곡의 풍경은 그야말로 별미이다.

시작 지점에서부터 3.1Km 부분에서 표고재배장 안내판을 보고, 아쉽지만 이번에는 여기에서 돌아가기로 했다. 왔던 길 그 대로 돌아가면 지루할 수 있지만 햇빛의 각도에 따라 자연은 또 다른 색깔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푸르름도 더해지고 오면서 길 찾느라 놓쳤던 주변 경치를 감상하는 여유로움까지 더해졌다.

물고기 머리를 닮은 바위, 마치 뱀처럼 나무를 휘감아 오른 나무 넝쿨, 원숭이 얼굴을 한 나무 줄기…. 빗방울이 굵어질 즈음 황홀했던 환상 숲길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다.

TIP 걷기를 좋아하고 시간 적 여유가 있다면 은은한 숲 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편 백나무 숲의 시오름 구간까지 걷고 되돌아오는 것이 좋다. 되돌아오는 길이 부담스럽다 면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



잘 만든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한 편이 유럽을 비롯해 세계로 수출되며 꼬마들에겐 신으로, 중소기업엔 캐시카우로, 병원에선 만병통치약이 되고 있다. 급기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함께 뽀로로를 마스코트로 삼자는 온라인 청원까지 봇물치고 있다. 아이들에겐 신과 같고 대통령 같다 해서 '뽀느님' '뽀통령'이라 불리는 리틀 펭귄 뽀로로 신드롬을 살펴보자.

글_ 한정현

뽀통령 신드롬 1. "뽀통령을 평창올림픽으로…"

김연아와 뽀로로의 닮은 점은?

E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유아용 애니메이션 '뽀로로'가 피겨여왕 김연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의외의 분야에서 경쟁과 보완 관계를 이루는 국민 캐릭터를 형성하고 있다. 뽀로로 우표가 나오자마자 김연아 우표의 인기를 단번에 넘어서 버리는가 하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주역 김연아가 귀국하기도 전에 온라인에서는 뽀통령을 평창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삼자는 청원이 벌어지기도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뽀로로를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네티즌의 서명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뽀로로가 한국 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며, 모자에 새겨진 P자가 평창의 P와 같으며, 온 국민이 잘 알고 좋아하므로 충분히 평창 마스코트가 될 자격이 있다는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뽀로로는 지난해부터 피겨선수 김연아, 한류스타 배용준 등과 함께 2012년까지 예정된 '한국방문의 해'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그러나 올림픽 마스코트의 저작권은 IOC로 귀속되므로 이미 상업적인 캐

릭터로 자리잡은 뽀로로가 올림픽 마스코트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뽀통령의 인기를 새삼 실감케 한 사건이었다.

뽀로로는 전용 비행기로 모험을 즐기는 사고뭉치 아기 펭귄으로 2002~2005년 제작된 애니메이션이다. 최근에는 3D로도 제작되고 있다. 뽀로로는 아이들에게 대통령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뽀통령'이라고도, 신적인 존재라 하여 '뽀느님(뽀로로+하느님)'이라고도 불린다.

뽀통령 신드롬 2. 통곡의 영유아 주사실이 잠잠해져

아이에게는 물론 부모에게도 뽀로로는 이미 유명 인사다. 뽀로로 효과를 체험한 서너 살 이상 아이를 둔 젊은 부모를 중심으로 리얼 체험담 '뽀로로 간증집'이 확산되고 있다.

"제 친구가 보건소에서 공익근무를 했는데 담당이 영유아과였습니다. 애들이 주사를 맞는 곳이라 '통곡의 계곡'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던 중 벽에 뽀로로 스티커 등을 붙이고 곳곳에 뽀로로 책자와 인형 쿠션 등을 배치하자통곡의 계곡이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제작진에게 노벨평화상을 주라는 소

(옛 하나로텔레콤)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당시 유아 시장의 경쟁자가 없다는 것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모험이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위험 분산 면에서 공동투자를 하게 되었다. 이들 회사가 공동투자하고 여기에 당시 대북사업에 참여하고 있었던 하나로텔레콤을 통해 극화 등 메인 프로덕션의 일부(시즌 1의 52편 가운데 22편)는 북한의 삼천 리총회사에서 담당하고 기획과 더빙 등 후반 작업은 남쪽에서 담당했다. 2003년 11월 뽀로로가 EBS에서 첫 방송을 타면서 대박 행진이 이어졌다. 첫해에만 로열티 수입으로 1억3,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최근 서울산업통 상진흥원의 브랜드 가치 평가 결과 3,893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올해 초까지 거둔 로열티(저작권료) 수입이 500억원 달한다. 캐릭터 시장의 규모만도 연간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뽀로로가 거두어들이는 1년 저작권료가 130억원 가량이므로 50억원 가량인 박지성 선수의 연봉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뽀로로 인기에 힘입어 동탄 신도시에서는 뽀로로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앞으로 주요 도시에 제2, 제3의 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이다.









리까지 나올 정도니 말 다 했죠."

"병원에서도 소아채혈이나 주사 이후 반창고로 뽀로로 키즈밴드를 붙여주면 애들이 울다가도 뽀로로 그림을 보면 울음을 그쳐요."

'뽀로로 밴드'는 아픈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뽀로로 식기세트'는 밥을 멀리하는 아이도 밥상으로 얌전하게 불러들이고, 이닦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뽀로로 전동칫솔'을 쥐어주면 잘 때도 꼭 쥐고 잔다는 '간증'이 이어진다. 상업적인 마케팅이 아닐까 의심이 들겠지만 아이를 키워 본 엄마들에게는 무릎을 치는 리얼한 상황들이라니 뽀통령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뽀통령 신드롬 3. 뽀로로 산업 박지성의 2배

(뽀롱뽀롱 뽀로로)가 EBS에서 처음 방영된 때는 2003년 11월. 그때만 해도 유아용 애니메이션 시장은 미미했다. 김종세 아이코닉스 상무는 "애니메이션 강국이라고 하는 일본도 TV 방송사에 유아 띠 편성이 없었다. 일주일을 단위로 매일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띠 편성은 국내에서도 방귀대장 뿡뿡이 정도가 있을 뿐이었다"고 말한다. 뽀로로의 저작권은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 · 오콘 · EBS · SK브로드밴드

뽀통령 신드롬 4. 110개국 어린이에겐 뽀대사

뽀로로는 이미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110여 개국에 수출한 히트 상품이다. 뽀로로는 국내에서 본방송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해외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2003년 4월 이탈리아 '키툰스온더베이 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 3개 경쟁 부문에 진출했고, 2003년 6월 국내 최초로 프랑스 안시페스티벌에서 텔레비전 시리즈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다. 2003년 11월 프랑스 국영방송 TF1과 배급 계약을 체결하고 아침 7시에 방영해 시청점유율최고 57%를 기록했다. 절반 이상이 뽀로로를 본 셈이다.

특히 명랑 애니메이션을 선호하는 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스페인 등 유럽에서 반응이 좋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뽀로로와 유사한 카피 캐릭터까지 등장했다. 비행사 모자를 쓴 호기심 많은 좌충우돌 꼬마 펭귄 뽀로로, 눈 속에서 발견한 알에서 태어난 아기공룡 크롱, 상냥하고 섬세한 비버 소녀 루피, 영리한 꼬마 발명가 여우 에디, 신중하고 낙천적인 꼬마 백곰 포비 등이 하얀 설원을 배경으로 펼치는 천진난만 유쾌한 스토리가 전세계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남북한 합작 한반도산 캐릭터 뽀대사의 활약을 기대해보자.

자전거계의 페라리

'콜나고 페라리'





페라리



b o o k + Communion



차인표 장편소설 오늘예보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 작가 차인표가 전하는 코끝 찡한 위로

오늘이 '끝' 이라는 악마의 속삭임…… 진실일까?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제자리 인생들의 기막힌 반전 상처투성이 세상을 보듬는 가슴 따듯한 이야기꾼 차인표의 신잭!

글 이창우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되는 일 없이 제자리만 맴도는 인생,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최후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인정머리 없는 세상, 꿈조차 꿀 수 없는 이들에게도 내일이 있을까. 오늘이 우리 인생에 주 어진 마지막 하루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1993년 방송 데뷔 이래 폭넓은 연기활동은 물론 사회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나눔으로 큰 사랑을 받아온 차인표가 두 번째 장편소설 〈오늘예보〉를 출간했다. 2009년 위안부를 소재로 한 처녀작 〈잘가요 언덕〉에서 차분하고 투명한 문장으로 아픈 과거사를 조명했던 그는, 〈오늘예보〉에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작과는 또 다른 유머와 위트 넘치는 문체로 그려낸다.

1997년부터 연기를 통해 동시대인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실의 문제를 보다 깊이 공유하고자 글쓰기를 시작한 차인표 작가. 그는 이번 작품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가려진 곳, 아픈 이들의 속살을 세밀하게 그려내며 세상을 보듬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작가적 지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998년 IMF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거듭하던 때 우연히 한강변에서 울고 있는 남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던 미안함을 간직하고 있던 작가는 몇 년 뒤 갑작스런 동료의 죽음을 계기로 본 작품을 본격 집 필하게 되었다. "글이 사람을 안아줄 순 없겠지만, 안아주고픈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믿기에 나는 이 글을 끝까지 썼다"고 밝히듯이, 작가는 이 시대의 지치고 고단한 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속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10여 년 전에 이미 구상된 〈오늘예보〉는 처음에는 영화 시나리오로 썼다가, 다시 연극 대본으로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소설로 완성되었다. 여러 명이던 주요 인물도 세 명으로 압축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취재를 통해 각각의 인물들과 상황을 보다 현실감 있게 그려내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소설은 악명 높은 '인생예보자' DJ 데빌의 하루예보로 시작되는데 불행한 앞날이 예고된 세 남자의 하루가 옴니 버스 식으로 속도감 있게 펼쳐진다.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10년 노력이 물거품 된 채 노숙자로 전략하여 이제는 죽는 것 말고는 달리 선택할 것이 없는 전직 웨이터, 일당 4만 원을 벌기 위해 촬영현장에서 밤을 새가며 고군분 투하는 주식 브로커 출신 보조출연자, 떼인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음 직전의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도망자를 쫓는 것뿐인 퇴략한 전직 조폭. 이들의 기막히고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서로의 현재와 미래와 교묘하게 얽히며 극적 긴장감과 함께 예상치 못한 반전을 일으킨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자신의 '오늘'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은 지치고 고달픈 현실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점에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이들은 현실의 무게와 생존의 부담 속에서 도 가족을 위해 삶의 비루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 가장들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 소설은 팍팍한 현실과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로 불안하기만 한 우리들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또다른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게 해줄 것이다. SCH



정명훈의 '아시아필' 8월 8~9일 국내 무대 지휘한다

정명훈이 지휘하는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내달 한 · 중 · 일 투어에 나선다.

올해로 창단 14년인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시카고 심포니의 로버트 첸,런던 심포니의 클라리넷 수석 치유 모등 세계서 활약중이 최정상 연주자들을 단원으로 두고 있다.

아시아필하모닉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중국 초청공연을 가진다. 8월 6일 오후 8시 중국 북경 국가대극원에서 무대 오를 예정. 국가대극원은 올림픽을 기념해 준공된 중국의 대표적 건축물로 런던필,뉴욕필,빈필,피츠버그심포니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올렸다.베이징 공연을 끝낸 뒤 8일과 9일엔 국내서 연주를 갖는다. 8

일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 공연장, 다음날인 9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에서 차례로 무대 오른다. 연주곡은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과 브람스 교향곡 4번. 전원교향곡은 자연을 향한 베토벤의 애정과 동경이 온회하고 풍부한 음율로 승화된 걸작이다. 브람스 교향곡 4번은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





추억의 골목으로 떠나는 여행 오케스트라 뮤지컬 〈피맛골 연가〉

서울시가 서울 대표 뮤지컬 육성을 위해 2010년 제작 초연한 〈피맛골 연가〉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오는 8월 23일 부터 세종대극장에서 공연한다. 〈피맛골 연가〉는 재개발로 인해 사라져 가지만 조선시대부터 얼마 전까지도 북적 거리던 피맛골 서민들의 푸근했던 정서를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는 작품이다. 〈피맛골 연가〉는 서울의 중심 종로의 피맛골에서 제도권인 양반과 비제도권인 서출의 갈등을 사랑을 통해 푸는 내용으로써 세계인이 충분히 공감할수 있는 소재이다.

가창력과 연기력을 인정받은 박은태, 조정은, 임현수와 배테랑 배우 양희경 등이 다시 모여 한층 무르익은 연기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서울시는 오는 7월 5일 티켓오픈과 함께 7월 11일까지 조기예매의 경우 30% 할인 이 벤트 계획(단, R-VIP석 제외)이 있으며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에게 S석 이하를 30% 할인해 주고 24세 이하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사랑티켓' 회원의 경우 관련 사이트(www.sati.or.kr)에서 7,000원이 추가 할인된 금액으로 공연을 예매할 수 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뮤지컬 〈피맛골 연가〉 공식 site(http://pimagollov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ws + Communication

순천향중앙의료원

순천향의료원, 캄보디아에 모자보건사업 노하우 전수 시엠립주립병원 등 보건의료 관계자 초청 연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의료원 장 정희연)은 6월 13일부터 25 일까지 국제협력단(KOICA)과 함 께 캄보디아 시엠립 주립병원장, 부원장, 보건부 부국장 등 보건 의료 관계자 3명을 초청해 모자 보건센터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캄보디아 시엠립 주립병원의 모자보건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정희연 의료원장은 수료식에서 "이번연수를 통해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이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3명의 의료 인력이 본국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사업의 전반적인 윤각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중간관리자 워크숍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강원도 횡성의 현대성우리조트에서 2011년도 중간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의료원 산하 서울, 구미, 천안, 부천병원의 대리급 직원 250여명이 참석해 분임토의 및 결과발표, 팀빌딩 활동, 레크레이션등으로 각 병원 간 정보교류는



물론 순천향은 하나라는 가족애와 지긍심을 높였다.

순천향대학교

순천향대, 4년 연속 '교육역량강화 사업' 지원대학 선정 순천향대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지원 대학으로 4년 연속 선정되었다. 올해 지원금은 45억2천여 만원이다.

순천향대 입학사정관제, 새로운 시도 주목

순천향대학교가 교과부의 '입학 사정관제 지원 사업' 우수 대학 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8월 시작 되는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 에서는 대학의 건학이념인 인간 사랑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피닉스 전형'등 총 5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687명을 선발한다.

덕인 김태옥 CEO 강의실. 명명식 가져

5월 31일(화) 오전 유니토피아관 6층 604호 전자물리학과 강의 실에서 '덕인 김태옥 CEO 강의 실' 명명식이 열렸다. 이번 명명 식은 김태옥 회장이 후학 양성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대학 발전기 금 1억원을 쾌척한 것에 대한 감 사의 뜻으로 진행되었다.



대학 발전기금 모금 아이디어 모여

대학의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아이디어가 등장했다. 대학과 부속병원 교직원이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을 기부하는 '밀알 장학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있는 가운데, 자동차 보험과 연계한 '행복나눔 자동차보험'이 신설되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 6년 연속 미국소화기 연관학회 교육비디오 선정

순천향대학교병원 소화기병센터 조주영 교수팀(조 원영, 복진현)이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시카 고에서 열린 미국소화기연관학회 주간 학술대회 에서 6년 연속 교육비디오 선정이라는 금자탑(金 字塔)을 세웠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소 화기연관학회 학술대회에서 5년 연속 최우수 교 육비디오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는 '식도무이완 증(아칼라지아)에 대한 최신 내시경 치료법'이 교 육비디오로 선정된 것이다.



2010년도 해외환자 유치 우수기관 복지부 공로패

순천향대학교병원(신병준 병원장)은 2010년도 해외환자 유치 공로로 5월 26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이로써 순천향대학병원은 글로벌 병원으로 한걸음 다가섰다. 또 신병준병원장은 국가보건의료 최고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영예를 안게 되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병원 국제진료소는 연 1만여 명의 외국인 진료를 실시하고있으며 지난 2월에는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뉴질랜드 초고도비만환자 린다와 자스민 씨의 위 소매



절제술을 시행. 뉴질랜드 국영매체인 tvnz에 방송된 바 있다.

조주영 교수팀 '진단 및 치료 위장관 내시경 아틀라스' 출간

순천향대학교병원 조주영 교수팀(이태희, 조원영, 장재영, 정승원, 김현건, 박윤선, 복진현)이 미국 소화기병 주간 학술대회에서 5년 연속 수상한 ASGE(최우수 교육비디오상) 자료를 집대성한 〈진단 및 치료 위장관 내시경 아틀라스〉를 출간했다. 내시경 전 분야를 망라한 〈진단 및 치료 위장관 내시경 아틀라스〉 문의는 순천향대학교 출판부 041-530-1115로 하면 된다. 총 408쪽, 정가 3만원이다.

"5년 생존율 86.2%… 4기 환자도 40.8% 달해" 순천향대병원 김용진 교수팀 세계위암학회 보고

위암 수술기법, 수술 전후 관리 및 항암제의 발전 등으로 위암 환자의 생존율이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암 4기의 경우도 현저하게 생존율이 향상돼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순천향대학교병원 외과 김용진 교수팀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이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573명의 환자를 평균 32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것으로 2011년 세계위암학회 학술대회에 보고했다

작가들의 재능 기부로 만든 에피케이스 스트릿갤러리 순천향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개관



순천향대학교병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외래에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으로 장식한 스트릿갤러리 (Street gallery)를 마련해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스마트폰 케이스 디자인 전문 회사인 에 피케이스(www.myepicase.com)에서 유명 일러스트 작가들의 재능 기부 형식으로 가로 5.1m 세로 1.5m 크기로 설치했다. 소아청소년과 이동환 교수는 "진료를 기다리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귀엽고, 재미있는 그림을 보면서 즐거워한다"고 말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부천병원 1.000병상 시대 개막

부천병원이 별관 증축으로 병동을 새롭게 오픈하면서 1,000병상 시대를 개막했다. 부천병원은 5월 12일(목) 오전 11시30분 서교일 학교법인 동은학원 이사장, 홍대식 병원장, 박재성 부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암 전용 병동인 261병동, 262병동 오픈식을 개최했다. 이로써 부천병원은 1,000병상 시대를 열고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중증질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역임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오픈한 병동 내에는 무균실 규모와 기능이 대폭 강화되면서 암질환 치료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국 안휘중의학원 제1부속병원과 MOU 체결

부천병원이 중국 안휘성의 안휘중의학원 제1부속병원과 MOU를 체결, 선진 의료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부천병원은 5월 18일(수) MOU 체결로 본원 치과를 안휘중의학원 제1부속병원내에 개설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2013년 완공되는 안휘중의학원의 신축병원에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를 추가로 개설해 종합적인 국제검진센터를 개소, 현지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선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뇌졸중 치료연구회 세미나 성료

부천병원 뇌졸중 치료연구회(회장 김범태 신경외과 교수)가 지난 5월 19일(목) 오후 2시부터 원내 별관 지하්층 순의홀에서 '시간이 뇌혈관과 심장을 살린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환자와 보호자, 일반인 약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뇌졸중 질환의 이해를 돕는 건강강좌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무료검진을 원하는 참가자 70여 명에게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진행, 참가자들이 경동맥 건강상태를 점검해 주기도 했다.





서울병원 동정

장재영 소화기내과 교수 / 유럽간학회지 · 세계소화 기학회지 C형 간염 및 위정맥류 치료 효과 보고 최근 작성한 2편의 논문을 SCI 저널인 유럽간 학회와 세계 소화기학회지에 각각 게재하는 쾌 거를 달성했다.

우성일 정신과 교수 /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획득 한국인 정신분열병의 증상 특성과 안구운동이 상 유발 유전자 탐색 이라는 과제 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향후 3년간 연구비를 지 워받는다

황재욱 정신과 교수 /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선정

기초연구사업 부문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3년간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하승주 안과 교수 / 미국 백내장·굴절수술학회 녹 내장 부문 최우수 포스터상

송윤섭 비뇨기과 교수팀 / 통증, 공포감 없는 수면 전립선조직검사 대한비뇨기과학회지 논문 발표

노현진 신장내과 교수 / 신장학술지 논문게재 및 유럽신장학회 구연발표

논문은 2009년부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보건 산업진흥원으로부터 수혜한 약 2억8천여 만원 의 연구비로 진행한 것이다.

홍성숙 영상의학과 교수 / 초음파의학회 금상 대한초음파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사이버나이프 치료를 위한 금침 삽입 시 주의 사항을 전시해 금상(Gold Award)을 수상했다.



부천병원 동정

성기범 교수 / 신경과 6.12 대한평형의학회 회장 선출

정한용 교수/ 정신과

5.29~6.3 체코에서 열린 세계생물정신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

목지오 교수 / 내분비내과

6.3~8 미국에서 열린 미국내분비학회에서 주 제 발표

홍대식 교수 · 병원장 / 종양혈액내과

6.8~13 영국에서 열린 유럽혈액학회에서 주제 발표

박춘식 교수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6.10 \sim 17$ 터키에서 열린 유럽 알레르기학회에서 주제 발표

김용익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황승덕 교수 / 신장내과

6.21~28 체코에서 열린 유럽신장학회에서 주 제 발표

News + Communication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 협약 체결

부천시와 부천병원이 공동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건강도시 부천 을 위한 일환으로 5월 31일(화) 오후 3시 부천시청 만남실에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



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자문위원인 부천시간호사회, 김정기 부천시의원,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신뢰와 협 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시민들이 아토피질환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안심학교 유병률 실태조사, 과학적인 프로그램, 지식 보급 등 지역사회 전문가와 시민 건강을 위해 협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 임상간호연구 발표회 개최

부천병원 간호부가 주최한 '제1 회 임상간호연구 발표회'가 의 사·간호사·지역 보건소 담당 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15일(수) 오후 1시30분부터 원내 향설대강당 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발표회



는 향후 간호 분야에서 '근거에 기초한 간호 활동'을 수행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외부 강사의 특강으로 시작돼 9명의 간호사가 임상간 호에 대한 각기 다른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부천병원 간호부는 이번 제1회 임상간호연구 발표회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매 년 행사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노사화합 다짐하며 반송 한 그루를 향설송원에 심다

천안병원은 4월 25일 노동조합과 2011년도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하며 노사화합을 다짐하는 기념식수 행 사를 가졌다. 경영진과 노조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 이문수 병원장과 최미



영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화합된 힘으로 창조적 의료문화를 선도하는 병원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으며, 그 상징물로 반송(盤松) 한 그루를 병원 입구에 심었다.

이문수 병원장은 식수를 마치고 "소나무와 같은 변함없는 의지로 굳건한 노 사화합을 이뤄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중부권 최고병원을 이루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2011년도 창상봉합 워크숍 열어

천안병원 교육수련부는 5월 19일 교육관 2층 강당에서 '창상봉합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창상봉합 워크숍은 2002년 천안병원이 전국 수련병원으로는 최초로 실시한 인



턴&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인턴과 간호사들이 함께 외과적 술기인 창상봉합 술을 연마하는 실습 과정이다. 올해 워크숍은 성형외과 남두현 교수의 지도 하에 강의와 실습 순으로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마크 획득

천안병원은 지난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의료기관 인증마크는 국 제수준의 환자안전체계를 갖추고 최상의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임을 정부가 보증한다는 확인증. 이 인증마크를 획득하려면 정부가 파견 한 전문평가단이 실시하는 4일 동안의 엄정한 현 지실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천안병원은 지난 3월 22일

부터 25일까지 현지실사를 받았다. 인증기간은 2011년 5월 4일부터 2015년 5월 3일까지 4년이다.

고객 전용 전동카트 운행 시작

천안병원은 골프장에서나 볼 수 있는 전동카트 1대를 도입하고 6월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병원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제 공하기 위해 도입된 전동카트는 5인승 전기자동차. 병원입구 건 강증진센터 앞에서 본관을 경유하여 외래진료관 및 암센터를



오가며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과 검진 환자들의 이동을 돕고 있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지역주민 대상 각종 건강강좌 개최

매월 다양한 건강강좌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는 천안병원은 6월에도 각종 강좌를 개최했다. 강좌는 방문 암 강좌 2건을 포함해 총 4차례나 열렸으며, 총 수강인원은 500명에 이른다. 20일 천안시 병천면의 아우내은빛복지관에서는 '당뇨병 강좌(내분비내과 전성완 교수)'가, 23일은 천안시병천면의 수협연수원에서 '간암 강좌(소화기내과 이세환 교수)', 그리고 27일에는 천안시청과 천안시 영상미디어정보센터에서 '아토피·천식 강좌(소아청소년과 박준수 교수)', '부인암 강좌(산부인과 전섭 교수)가 각각 열렸다.

암 환자들을 위한 식단 전시회 개최



천안병원은 6월 24일 본관 로비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식단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서는 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다양한 암 관련 식단들이 소개되었다. 항암효과가 있는 식품을 이용한 여러 식단과 자연식단을 비롯하여, 실제 암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소화가 잘되는 식사', '면역에 좋은 식사', '식욕을 돋우는 식사' 등 다양한 식단들이 소개되었으며, 또 암 환자들의 체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환자용 균형영양식 시음회와 다양한 암 정보가 담긴 패널 전시도 함께 열렸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담배 연기 없는 병원문화, 금연 캠페인 펼쳐

구미병원이 최근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병원 캠페 인을 통해 병원 교직원 및 환자와 병원을 이용하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금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원내에 금연대책 TF위원회가 구성되어 병원 내부 를 순찰하며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를 펼 치고 있다.



구미병원 간호부가 입사 백일을 맞은 신규간호사와 신규교육전담간호사들을 위한 축하자리를 마련했다. 6월 15일 오후, 병원 강당에서 열린 간호사백일잔치는 '백일이 고비' 라는 병원 현장에서 성공적인 적응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20명의 신규 간호사들과 각 병동 신규교육전담간호사들에게 축하와 노고에 찬사를 보내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제5회 감염관리의 날 행사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칙이행으로 감염을 더욱 철저히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구미병원은 6월 29일 오후 3시30분 향설교육관에서 제5회 감염관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실천하는 감염관리'를 주제로 전 교직원이 동참해 응모한 포스터, 표어, 사행시와 동영상콘테스트가 열었다.

아름다운 하모니, 구미시립합창단 초청 공연

구미문화예술회관의 도움으로 6월 3일 오후 12시 30분, 구미병원 로비에서는 30여 명의 시립합창 단원들이 만들어 내는 하모니가 울려 퍼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TV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으로 유명해진 '넬라 환타지아'를 시작으로 여러 곡이 불러졌으며 남성중창단의 이탈리아 민요 '푸니쿠니푸니 쿨라'는 뮤지컬을 연상케 하는 무대연출로 환자들의 뜨거운 박수와 호응을 자아냈다.









박재성 교수ㆍ부원장 / 영상의학과 6.22~28 독일에서 열린 European Society of Thoracic Imaging에서 주제 발표



천안병원 동정

김영창 교수/소아청소년과 교과부장관 표창과 대한소아신경학회 학회발 전상 수상

여승구 교수/방사선종양학과 한국임상암학회 보령학술상 수상

이석호 · 이태훈 교수/소화기내과 5.4~13 미국 DDW2011 에서 포스터 발표

유시현 교수/마취통증의학과 5.5~13 미국 ARAW 참석

전민혁 교수/감염내과 5.6~12 이탈리아에서 열린 유럽감염학회 참석

심세훈 교수/신경정신과 5.12~18 미국정신과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서기현 · 이호성 교수/호흡기알레르기내과 5.12~19 미국흉부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김성용 교수/외과 5.13~14 홍콩에서 열린 OOTR 참석

백무준 교수/외과 5.16~20 미국대장항문외과학회 참석

이승진 교수/심장내과 5.16~20 2011 EURO PCR에 참석

김일영 교수/영상의학과 5.20~27 유럽복부영상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나성수 · 모상일 교수/류마티스내과 5.23~28 유럽류마티스학회에서 포스터 발표

양광익 교수/신경과 6.10~16 미국수면학회연합회에서 포스터 발표

한선욱 교수/외과 6.21~25 MBCC에서 포스터 발표

길효욱 교수/신장내과 6.22~28 ERA에서 포스터 발표



구미병원 동정

신임 교원(7월) 정선영 교수 / 신장내과 이종길 교수 / 영상의학과 박소윤 교수 / 병리과

정태석 교수 / 재활의학과

5.26~31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세계 축구과학 컨퍼런스 포스터 발표 6.01 청구 축구제청취 참리 기계 시오 구제 축

6.01 한국 축구과학회 창립 기념, 서울 국제 축 구과학 컨퍼런스, 좌장

SCH lounge

서울병원

파라과이 교포, 고도비만 수술 치료 위해 조국 찾아

23년 전 파라과이로 이주한 백 씨는 키 155cm 몸무게 95kg으로 체질량지수(BMI) 39,6의 고도 비만 환자이다. 수술을 결심하고 귀국길에 올랐 던 백 씨는 지난6월 2일 김용진 교수로부터 위

절제술을 받고 되돌아 갔다.

어버이날 기념 건강 걷기 대회 성료

서울병원은 5월 7일 용산 가족공원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 건강 걷기 대회에서 약 400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무료 혈당 및 혈압, 콜레스 테롤, 혈관 나이 측정과 5Km 걷기 등의 뜻 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순천향대병원 New 병원 경영 포럼 개최

순천향대학교병원(병원장 신병준)은 6월 14일 CEO강의실에서 협력병의 원 행정책임자 50명을 초청해 New 병원 경영 포럼을 개최했다. 병원 경 영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의 장을 위해 마련한 포럼이다.

의사가 환자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순천향대학교병원 내과 전공의 함남석씨가 지난 6월 1일 생면부지의 환자에게 혈액 성분 채집 방식으로 골수를 기증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보육시설과 중증장애아동시설에서 사랑의 인술 펼쳐

순천향대학교병원 의료봉사단(단장 조영덕)은 지난 5월 28일 후암동에 위치한 영락보린원과 중증장애아동시설 영락애니아의 집에서 생활하는 80여 명의 아이들에게 인술을 베풀었다. 5개 진료 과와 행정부서 40여명이 함께했으며 후원품도 전달했다.

한국산후조리업협회 및 곰두리복지재단과 협약 체결

순천향대학교병원(병원장 신병준)은 6월 23일과 24일 한국산후조리업 협회(회장 신필향)와 사회복지법인 곰두리복지재단(회장/총재 최규옥) 과 각각 의료협약을 체결해 신속한 의료 서비스와 상호 발전을 도모하 게 된다.

대두증 어린이 진료 지원

지난 6월 15일 순천향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서은숙 교수는 보육시설 혜심원에서 자라고 있는 권윤지 양(13개월 추정)의 대두증 진료를 지원해 훈훈한 인심을 전하고 있다.

부천병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수 행사 개최

부천병원이 개원 10주년 기념식수 행사를 5월 26일(목)과 6월 16일(목) 2차례에 걸쳐 병원 앞화단에서 진행했다. 1차 행사에서는 홍대식 병원장, 김범태 진료부장, 김용익 교수협의회 회장, 황태희 간호부장, 이성근 동문회장이. 2차

행사에서는 서교일 이사장, 홍대식 병원장, 박재성 부원장, 오전균 사무 처장, 황태희 간호부장이 참여해 각각 이성근 동문회장과 서교일 이사 장이 기증한 반송을 식수했다.

'제10차 캄보디아 의사 연수 수료식 및 임상 연구회 발 표회'개최

부천병원 '제10차 캄보디아 의사 연수 수료식 및 임상 연구회 발표회'가 지난 6월16일(목) 오후 4시 원내 순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수료식의 주인공은 지난해 7월부터 본원 산부인과에서 연수를 받은 위 소파,반 짠티어리, 몰셈 다라비 씨이다.

내시경 · 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11 개최

부천병원이 주최하는 '내시경·초음파 라이브 심포지엄 2011'이 지난 6월26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원내 별관 5층 향설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임상 진료의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이 실시됐다.

2011년도 QI 중간 발표회 성료

부천병원 '2011년도 QI 중간 발표회' 가 지난 6월24일(금) 오후 4시 원내 향설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중간 평가 점수는 과제 점수와 함께 연말에 진행되는 총 평가에 합산될 예정이다.

2011 미래 의대생을 위한 병원 체험 행사 개최

부천병원·순천향대학교·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5회 '미래 의대생을 위한 병원 체험 행사'가 7월 19일(화) ~ 20일(수) 양일에 걸쳐 부천병원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천안병원

찾아가는 무료 암 강좌

천안병원은 암 예방과 암 극복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해 암 전문 교수가 직접 찾아가 암 강좌를 열고 있다. 강사료는 비용이 들지 않 는 무료 강좌이다.

-신청 조건: 30인 이상 단체 및 사업장

-문의처: 041-570-2457~8. 팩스 041-570-3814

암환자들을 위한 강좌

천안병원은 암센터 2층 교육실에서 암환자 및 보호자들을 위한 암수술 후 관리를 비롯해 영양관리, 통증관리 등을 강의한다. 교육은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 시간: 월~금(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

-문의처: 암센터 코디네이터(전담간호사 041-570-3800)

2011년 제 2회 외과 개원의 연수강좌

천안병원 외과는 7월 16일(토) 오후 4시 병원내 교육관 2층 강당에서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합니다.



영남대학교병원과 협약 체결

지역 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구미병원이 6월 29일, 영남대학 교병원과 협력병원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다짐하며, 환자진

료 협력을 비롯해 최신 의학정보 교류, 의료기술 자문 및 검사 의뢰 등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당뇨 식단 전시회

영양팀에서는 내원객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이틀간 본관 로비에서 당뇨 식단 전시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영양 상담을 실시해 환자 들 개개인의 올바른 건강 식단을 제시했으며, 푸드 모델을 이용한 전시 를 통해 환자 및 내원객의 이해를 높여 호평을 받았다.

순천향인간사랑봉사회 구미병원, 스리랑카에서 의료봉사

구미병원 순천향인간사랑봉사회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대표 진오 스님)과 합동으로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스리랑카에서 의료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의료봉사 참여 문의: 054-468-9460



Letter of Thanks

환자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서울병원 정승원 교수님

소화기내과 정승원 교수님께서는 환자를 내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정성껏 진료해 주셨고, 보호자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딱딱하고 불친절할 줄 알았는데 친절하고 정성스런 교수님의 진료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정승원 교수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이따뜻한 가슴 뭉클함을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교수님의 최선의 진료를….

이정식 님

천안병원 홈페이지 박창래 님 글

우선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신관 2층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수술로 인해 본인의 몸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자식인 저로서 할수 있는 일이란 그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참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이 편찮은 상황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신 저희 기족에게는 은인처럼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곁에서 친절하게 대해준 신관 2층 간호사 김자연·이은정·주애린 간호사입니다. 부모님도 이들 세 사람이 "정말 친절히 성심 성의껏 잘 대해주더라"라고 저에게 말씀해주셨고, 저도 세 간호사분들이 부모님을 간호하는 것을 보면 '친절히 잘 대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들의 관심과 친절한 행동 덕분에 부모님께서는 퇴원하신 뒤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 강을 되찾으신 부모님을 보면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칭찬하는 것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짧은 글이나마 올려 봅니다. 김자 연 간호사님, 이은정 간호사님, 주애린 간호사님, 감 사합니다.

천안병원 홈페이지 이재종 님 글

어느 병원이든지 간호사 선생님들의 따스한 배려 및 한신은 누구에게나 느끼고 보여주는 일상생활의 기본처럼 생각된다지만, 정작 제가 간호사라면 저도 저렇게 할까? 솔직히 의문도 들고, 자신도 없답니다. 한 간호사 선생님을 천사로 추천하고자 감히 글을 올립니다. 단순하지만 시종일관 내내 밝은 웃음, 병실 방문 때마다 인사, 환자와의 가족적 대화, 모든 것이 칭찬보다 더한 표현이 있다면 그 표현을 사용하고 싶답니다. 명찰 이름을 언뜻 보고 올립니다. 간호사 정주연 선생님. 당신이 있기에 환자나 보호자들은 언제나 집안처럼 평온한가 봅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애쓰시는 모습. 고단하리만큼 힘드실 텐데 귀엽게 재치로 넘기는 선생님을 참다운 천사로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안병원 고객소리함 고객칭찬카드 김 순자 님 글

입원해 있는 동안 암 환자식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전에 항암 치료 받는 동안 음식을 통 먹을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좋은 메뉴에 맛과 정성이 깃 든 배식판을 받았을 땐 대접받는 듯한 기분과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생각에 감사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천안병원 고객소리함 고객칭찬카드 김 지혜 님 글

갑작스런 열로 인해 응급실로 내원했다가 콩팥의 염증으로 인해 비뇨기과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약 1주일여 기간이었지만 구명신 간호사님은 환자 누구에게나 항상 밝은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띠고, 환자와 보호자의 질문에도 성실히 대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환자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더라도 사무적이 아닌 친근감 있게 건네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

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에 대한 예쁜 그 마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환자를 기분 좋게 해주는 유쾌한 간호사님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감사합니다.

인기 '짱' 박병원 서울병원 심장내과 교 수님

입원한 날부터 퇴원하는 날까지 세심하게 신경써주셨어요. 회진하시면서 이것저것 잘 설명해주시고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자주 오셔서 환자들을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며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원하는 날에도 잊지 않고 오셔서 걱정 말라는 말씀과 함께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입원했던 병실에서 교수님이 인기가 '짱'이에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육문희 님

순천향대 구미명원성형외과 교수님과 52병동 간호사선생님들께!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 많아서 글을 올립니다.

아침부터 밤늦을 때 까지 잠도 주무시지 않고 환자 를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 답니다.

가족과 같다는 말 다른 병원에 가기 싫을 정도로 저를 너무너무 아껴주시고 포근한 미소와 따뜻한 관심으로 저를 돌보아 주셔서 아마 제가 빨리 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입대를 하고 멋진 경찰이 되려고 합니다. 선 생님들의 무한사랑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하여 두려움과 낯설음으로 외로운 환자들에게 제가 느꼈던 가족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실 선생님들 보고 싶습니다.

경찰되어 제복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 러 올게요

환자 육원호 님